

INCHEON

1883

제1개항 — 제물포항 개항

개항창조도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견인

2001

제2개항 — 인천공항 개항

첨단국제도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국제도시 기반 구축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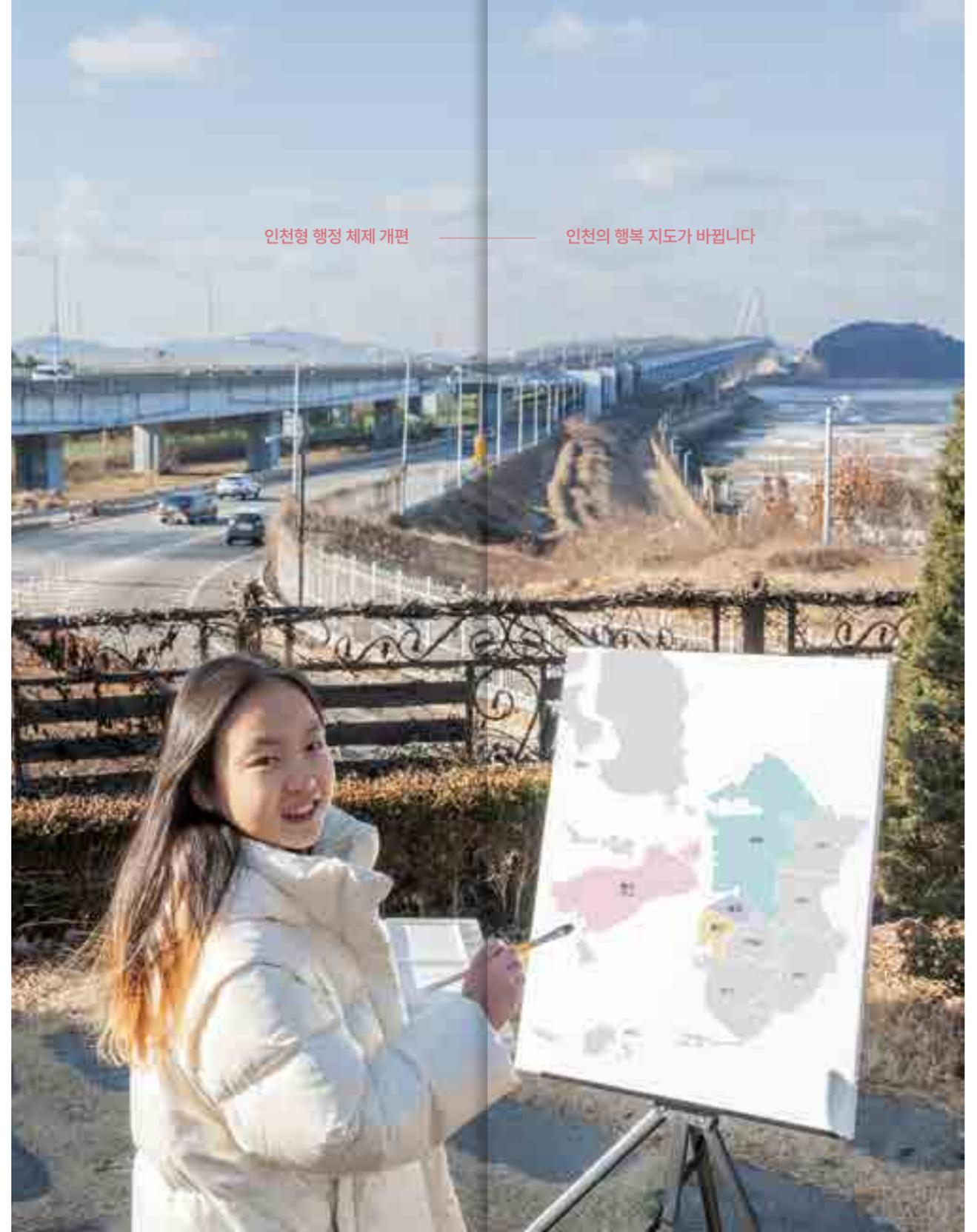
제3개항 — 제의동포청 개청

초일류 미래도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도시



인천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를 열다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

인천의 행복 지도가 바뀝니다

INCHEON



인천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를 열다

1883

제1개항 — 제물포항 개항

개항창조도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견인

2001

제2개항 — 인천공항 개항

첨단국제도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국제도시 기반 구축

2023

제3개항 — 재외동포청 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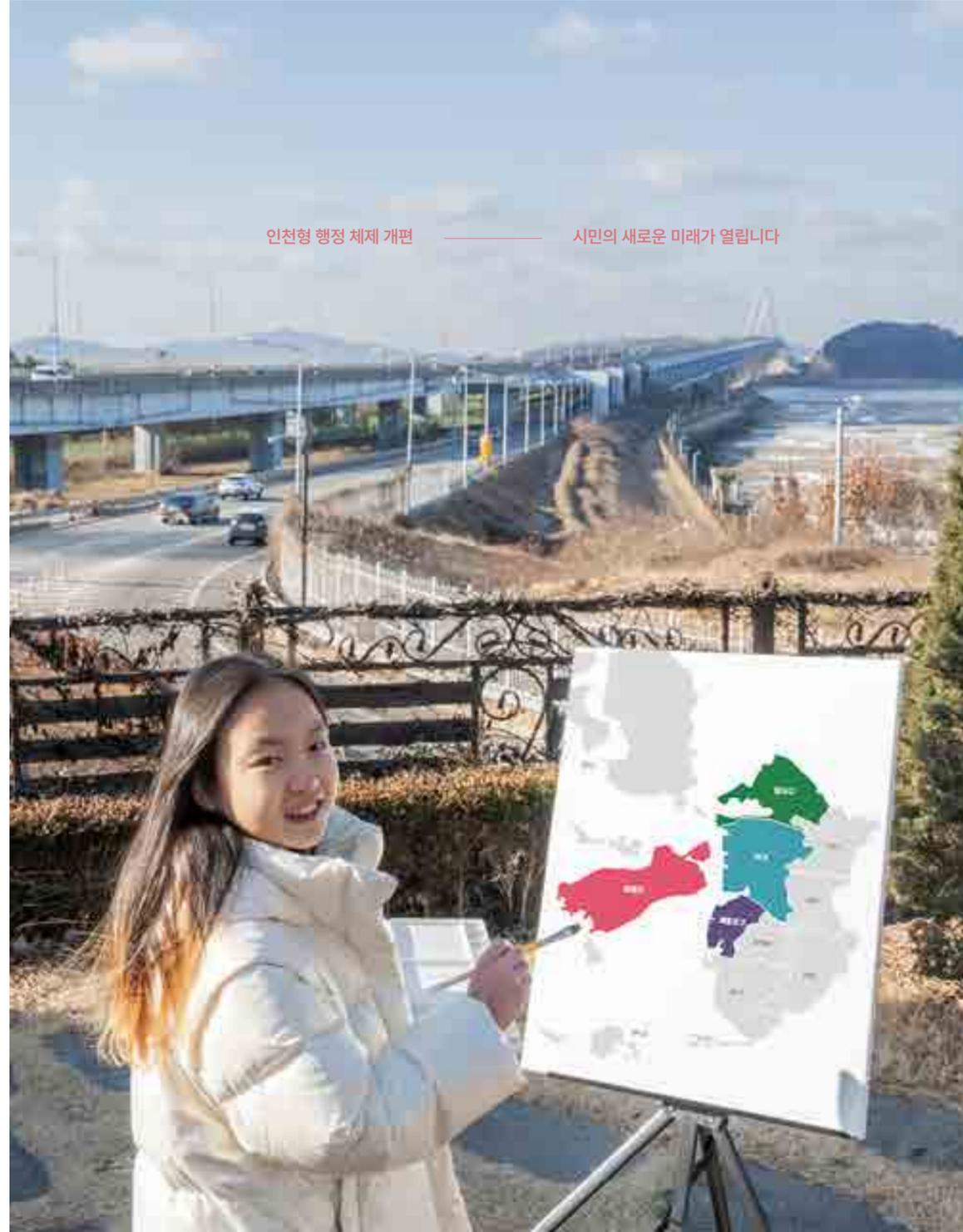
초일류 미래도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도시

굿모닝인천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62

인천의 행복 지도를 그리는 김소윤 시민(서구 봉오대로) 뒤로 '영종대교'가 보인다.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 — 시민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인천의 행복 지도가 바뀝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2026년 7월, 인천시가 현 2군·8구에서 2군·9구 체제로 출범합니다. 31년 만에 다시 그리는 인천의 행복 지도입니다. 300만 시민의 삶에 행복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인천의 내일은 더 화사한 봄빛.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늘에 닿을 만큼, 더 행복한 세상이 다가옵니다.

[2개 군 8개 구 → 2개 군 9개 구로 확대]

중구·동구	▶	제물포구로 통합
영종도 일대	▶	영종구로 출범
서구	▶	서구로 분리
		검단구로 분리

※ 관련 기사: 22-27면

<굿모닝인천>의 표지 모델이 되어주세요!
2024년 <굿모닝인천> 표지의 주인공은 시민 여러분입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 gmi2024@naver.com으로 성함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드론으로 본 영종 갯벌

인천은 [바다] 다



글·사진 한상표 드론 사진작가

인천은 바다와 168여 개의 크고 작은 섬을 품고 있다. 바닷가에 수변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수도권 시민도 인천의 바다를 많이 찾고 있다. 환경 오염과 기후 재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수록 자연정화 시스템인 바다와 갯벌이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바다 환경 중에서도 갯벌에 대한 관심이 많다. 드론 촬영을 시작한 8년 전부터 카메라로 접근이 어려운 바다와 갯벌을 주로 촬영하고 있다. 촬영을 하다 보면 갯벌이 가진 중요성보다도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매료된다.

칠면초, 통통마디, 해홍나물 등의 염생 식물로 뒤덮이는 서해 갯벌은 봄에는 연녹색과 노란빛의 생동감으로 가득 차고, 가을에는 짙은 자주색으로 변해 회색빛 갯골과 조화를 이루어 관광지로서도 손색이 없다.

내가 자주 촬영하는 영종과 강화 갯벌은 순천의 갯벌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바다를 비롯한 갯벌과 갯골 등을 잘 가꾸어 보존한다면 바다 환경은 앞으로 인천의 큰 자산으로 평가될 것이다.

바다는 모든 것을 묵묵히 품어주고 정확해 내어준다. 어머니의 품 같은 바다를 닮아 우리 인천 시민의 마음도 넉넉해질 수 있기를.

FEBRUARY 2024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62



굿모닝인천 웹진 오디오북 듣기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4년 2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청
편집주간 한영진(홍보기획관)
편집장 임성훈
편집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임학현·최준근·유승현·박재현
제작 웨스트코(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04	인천 미소 유익함에 날개를 단 <굿모닝인천> 외	40	문화 캘린더 미술 체험전 매직 박스 외
05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공항에서 만나는 필독서	42	시민의 시선 굿모닝, 아침을 깨우는 풍경
06	인천에서 인천으로 함박마을	44	이미지 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확정
10	프리뷰 The First Mover, Incheon 인천, 그 위대한 비상	46	시정 뉴스 5월부터 '아이패스'로 교통비 돌려받아요 외
16	굿모닝인천 30주년 특집 인연仁緣, '책연冊緣'	50	의정 뉴스 시민 위해 머리 맞대는 역대 최다 의원들 외
22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 인천, 행복 지도를 그리다	52	컬러링 인천 문화가 있는 특화 역사
28	요즘, 인천 '마계인천'의 반격	54	인포 박스 시민안전보험으로 든든하게 외
32	굿인이 만난 사람 작가 지강민	57	땅 이름 이야기 미추홀-매소홀
34	내가 사랑하는 인천 창작의 영감을 주는 인천	58	시민 행복 메시지 2026년 7월을 기다리며
36	출생 정책 인포그래픽 태어나 보니 인천 시민	59	인천사진관 송도에서, 박해민 시민과 동료들
38	문화 줄인 인천시립박물관 이색 전시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시홍보기획관실 032-440-8306



<굿모닝인천>과 함께 행복 지도를 그리세요

인천에서 이슈가 끊이지 않습니다. 인천은 2026년 7월 인천형 행정 체제 출범으로 새로운 인천 시대를 맞이합니다. <굿모닝인천> 2월호 첫 장에서는 우리의 미래, 어린이의 손을 빌려 행복 지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아울러 행정 체제가 개편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 기대감과 소망을 들었습니다. 또한, 연수구 함박마을을 찾아 재외동포청을 품은 도시, 인천에서 새로운 꿈을 빛고 있는 고려인 후손들의 삶을 소개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특히 이번 호에는 인천에 대한 열정熱情 '마계인천'을 '매혹적인 별칭'으로 승화시키려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개항로의 청년들, 시의원, 시민들이 뜻을 같이 하는 이유도 들어보았습니다. 웹툰 '와라! 인천 마법의 세계로'의 지강민 작가는 진한 인천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굿모닝인천>과 책연冊緣을 맺은 시민들의 이야기는 '창간 30주년 특집'에 담았습니다. 2월호 <굿모닝인천>과 함께 행복 지도를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인천미소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incheon.kr
- www.youtube.com/user/icna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유익함에 날개를 단 <굿모닝인천>

<굿모닝인천>의 변신은 무죄! 2024년 청룡의 해의 시작과 함께 확 달라진 <굿모닝인천>을 보고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표지에 날개를 달아 인천의 주요 정책을 재치 있게 구현한 콘셉트가 무척이나 인상 깊었습니다. 창간 30년, '인천의 가치를 담고 시민의 행복을 그린다'라는 문구처럼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시민의 <굿모닝인천>이 되어주세요.

김정애 계양구 도두리로

시민의 꿈이 이뤄지는 도시 인천

연초부터 각종 뉴스를 뜨겁게 달군 인천형 출생 정책 '1억+i dream'에 대한 기사 잘 봤습니다.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게 첫 번째 수혜자가 될 복덩이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흥미로웠습니다. 이처럼 올해는 시민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정책들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민의 꿈이 이뤄지는 도시 인천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권기욱 서구 가정로

욕쟁이 할머니에게 닮고 싶은 삶

'장봉도 욕쟁이 할머니 공정업' 코너에 실린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섬마을 할머니의 평범한 삶을 다룬 기사라 생각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할머니가 살아온 스펙터클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도 결심하지 못하고 실행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낸 할머니의 멋진 인생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임희진 미추홀구 소성로

전 세계의 시선이 영종도로

'인스파이어 아레나' 기사를 보며, 영종도의 도시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간 송도나 청라와 비교해 발전이 더디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세계적 수준의 아레나와 리조트 개장이 영종을 진정한 국제도시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에도 이어질 영종국제도시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수지 연수구 송도동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공항에서 만나는 필독서

글 이윤수 독자(서울시 강남구)

인천 사람이 아닌데, <굿모닝인천> 마니아라 말하기가 머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는 지역이 대수일까요. 그저 <굿모닝인천>을 기다리고, 보고, 즐기는 이라면 누구나 인천 사람, <굿모닝인천> 마니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짧은 글을 전합니다. <굿모닝인천>은 제게 '공항에서 만나는 필독서'입니다. 업무차 중국에 오갈 일이 많아 인천국제공항을 자주 이용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은 안내 데스크입니다. 그곳에서 손에 쥘 따끈따끈한 <굿모닝인천> 신간은 비행기 안에서, 또 오가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줍니다. <굿모닝인천>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인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깊이 있게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지금 사는 지역에 대입해보며 좀 더 나아질 내일을 그려보곤 하지요. 사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천을 무대로 진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가슴 한편에 작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매번 귀국할 때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만나게 되는 'INCHEON'이라는 큰 글자 간판이 반가운 이유도 어찌면 <굿모닝인천> 때문일지 모릅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도시 인천의 이야기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도시로 퍼지길 응원합니다.

<굿모닝인천> 마니아를 기다립니다!

매월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코너에 소개될 시민과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의 인연, 추억, 고마움 등 어떠한 내용이어도 좋습니다. <굿모닝인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gmi2024@naver.com

750만 재외동포와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진 도시. ‘재외동포청을 품은 도시, 인천’에 고려인의 후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오랜 꿈과 그리움을 길잡이 삼아, 아직은 서툰고 낯설지만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한 세기, 먼 길을 돌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행복한 꿈을 꾸습니다. 1,000만 국제도시, 재외동포의 역사적 뿌리, 인천. 이곳이 우리가 꿈꾸던 고향입니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디렉터 | 도움말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우리가 꿈꾸던 고향, 인천



66
1,000만 국제도시,
재외동포의 역사적 뿌리, 인천
이곳이 우리가 꿈꾸던
고향입니다

99

‘푸른마을 함박도서관’의 한국어 교실.
현재 함박마을이 소재한 연수1동에는 6,000명 안팎의 고려인 가족들이 동지를 틀었다. 단일 지역으로는 광주 고려인마을과 안산 뱃골마을을 웃돈다.



‘할아버지의 땅’에서 자신의 뿌리를 알아가고 희망의 싹을 틔우는 ‘꿈너머돌봄교실’의 아이들.

‘할아버지의 땅’에서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첫새벽, 어둠을 헤치고 달려온 통근버스가 마을의 아침을 깨운다. 함박마을의 하루는 여느 곳보다 일찍 시작된다. 출근이 이른 공장 근무자들이 많아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모두들 일터로 향한다. 수 대에 걸친 유랑의 역사만큼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되짚어 ‘기억 속 조상의 땅’을 찾은 고려인 3세대들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고단한 아침 속으로 뛰어든다.

어린이집, 유치원도 새벽같이 문을 연다. 잠에 취한 세 살배기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고려인 엄마는 통근버스 정류장으로 분주히 발길을 재촉했다. 서툰 한국어로 ‘다른 나라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이에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란 말을 남기고.

출근 행렬이 한풀 꺾일 즈음,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의 ‘꿈너머돌봄교실’도 문을 연다. 1세부터 5세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혀 단체 생활과 학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다.

요즘 설날을 앞두고 윗놀이에 빠져 있는 아이들, 윗쪽을 하나씩 들고 내던지는 게 전부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할아버지의 땅’에서 자신의 뿌리를 알아가고, 희망의 싹을 틔우는 함박마을 아이들의 일상이다. 자신들이 나고 자란 땅, 온 가족이 뿌리내린 터전, 몸과 마음의 고향, 인천에서 고려인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란다.

고려인 강제 이주의 역사



- 고려인 강제 이주(1937~1938년)**
 - 연해주와 라즈돌리노에 기차역에서 첫 열차 출발
 - 18만 고려인 중앙아시아 별판으로 강제 이주
 - 소련 정부의 한글 교육 금지(1938)
- 고난과 개혁의 시기(1939~1955년)**
 - 황무지, 파산 집단농장 등으로 재배치. 이주 제한
 - 고려인들로 인해 중앙아시아의 농업 크게 발전
- 우수한 민족으로 자리매김(1955~1990년)**
 - 고려인 이주 제한이 해제되고 도시 진출(1956)
 - 신분 상승의 열망으로 적극적인 교육 투자(1960년대)
 - 높은 대학 진학률, 55%가 전문 직종 종사(1980년대)
- 소련의 붕괴와 재이주(1991년 이후)**
 - 갑작스러운 소련 해체로 고려인들 재이주
 - 한국-러시아 첫 수교(1995)
- 고려인 귀국의 문 열려(2007년 이후)**
 - 고려인 모국 귀환(2007)
 - 재외동포청 출범, 인천 고려인 문화주권 선포(2023)



고향이라는 별을 따라 먼 길을 돌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뿌리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고려인들에게 인천은 어떤 존재일까.

1937년,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중앙아시아의 허허벌판에 버려진 고려인. 강제 이주 후 고려인들은 생존과 미래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 법씨 하나 토틀 수 없었던 황무지를 옥토로 일궈냈고, 교육으로 신분 상승의 디딤돌을 만들어냈다. ‘공부만이 민족이 살길이다’라는 믿음으로 밥을 굶어가면서도 자식들을 가르쳤다. 그 결과, 2세대들의 대학 진학률은 소련 내 최고 수준이 되었고 카자흐스탄의 경우 평균의 2배를 넘었다. 고려인 3세부터는 우즈베키스탄의 소수 엘리트 민족으로 자리 잡았다. 애끓는 교육열을 지닌 민족,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맨손으로 새 삶의 터전을 일궈낸 기적의 주인공. 그들이 바로 고려인이다.

유라시아의 빛나는 별, 고려인

꼭꼭 눌러 담은 기억

“우리 학교에서는 고려인들이 최고였어요. 제일 똑똑했어요.” 고려인 3세 김이리나(53) 씨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묻어난다. 그 뿌리에는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매일 밤 책을 읽던 외조부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 “할아버지는 항상 ‘한글 책’을 읽었어요. 책장이 다 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어요. 그때 잘 몰랐습니다. 그 시리고 아픈 마음을.” 17년 전, 부모들이 한평생 가슴에 품고 산 ‘한글 책’의 나라로 오는 길이 열렸다. 유년의 기억을 따라 인천에 왔다. 2007년 정월, 처음으로 한국땅을 밟았던 때의 기억을 묻자 그의 얼굴에 열은 미소가 감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감탄했어요. ‘우와~’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큰 발전을 이뤄냈구나’. 한민족이란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 순간, 고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피어났다. 두방망이질 치는 가슴을 안고, 바다를 건너 처음 온 곳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인천에는 일자리가 많아요. 희망이 있어요.” 꿈을 빛으로 삼아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그의 삶을 지탱했다. 이제 그녀는 함박마을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이 돼, 고국을 찾은 사람들을 꽃처럼 활짝 핀 얼굴로 반겨주고 있다. 그에게서 고려인들의 밝은 오늘과 더 빛날 내일을 본다.



고려인 3세 김이리나 씨

인천에서, 더 빛날 내일

“드시오.” 레몬 홍차와 한국 사탕과 러시아 쿠키를 내어주는 조병수 할머니는 사투리를 쓴다. 그 말조차 많이 있었다. 그래도 띄엄띄엄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하다. “알아는 듣는데 말은 잘 못해요.” 유랑의 역사 속에서, 많은 기억들이 사라졌다. 우즈베키스탄 식당인 ‘차이하나’의 사장, 이유허(47) 씨는 최근 귀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불현듯 찾아오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 없다. “우리 엄마, 가을까지는 농장에서 일하고 겨울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했어요. ‘당근 김치’는 고려인들이 만든 건데 맛있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먹게 됐어요. ‘국시’는 잔칫날에 먹는 국수예요.”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부모들은 언젠가 자식들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당근 김치와 국시 한 사발엔 자식들이 고향의 맛을 기억하기를 바란 어머니의 그리움과 기다림이 담겨 있다. 동유럽 흑해 연안에 위치한 공화국, 조지아에서 온 김이리나(62) 씨는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아들의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작년 ‘김-치즈’라는 식당을 열었다. 수제 치즈가 듬뿍 들어간 빵에 계란을 올려 먹는 ‘조지아의 국민빵, 하차푸리’가 인기 메뉴다. 그는 조지아에서 잘나가는 식당 오너 셰프였다. 그의 빛나던 시절이 그곳에 있다. 그러나 한국에 오게 됐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인천 안에서 새로운 꿈을 빛고, 이뤄나갈 것이다. 옛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천 속 '작은 외국', 함박마을 사람들. 이유허 씨, 김이리나 씨, 조병수 씨(위에서부터)

© 최준근



66
당근 김치와 국시 한사발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이 담긴 고려인들의 애달픈 밥상이다
99

거리 곳곳 키킬 문자와 영어 간판이 즐비한 함박마을 풍경. 우리 시는 지난해 '함박마을 고려인 문화 주권'을 선포하고, 올해부터 문화 축제를 연다.

THE FIRST MOVER, INCHEON

인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역사와 미래의 바다 '인천 내항'에서 격동의 시간을 표현하는 인천시립무용단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인천은 그 중심에 있었다. 1883년 제물포항 개항으로 바닷길이 열릴 때도,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세계의 새 하늘길이 펼쳐질 때도 인천이 있었다. 오늘 인천이 300만 시민,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세상에 없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 '세계 10대 도시'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 내일이면 세계 중심에서 '위대한 인천'의 새 역사를 쓴다. '우리는, 인천', 우리는 The First Mover,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선도자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1883년 1월 1일, 제물포항이 열렸다. 외세의 힘으로 밀어붙인 뼈아픈 개항이었다. 그렇다고 두려운 건 아니었다. 우리는 개척자이고 선도자다. 역사의 소용돌이를 묵묵히 견뎌내며 땀과 눈물로 세상을 바꾸었다.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역사를 이 땅에 단단히 뿌리내렸다. 질곡의 역사가 삶을 가두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을 뚫고 곳곳이 빛났다. 그리고 오늘, 우리 힘으로 당당히 '제3의 개항'을 연다. 인천이 세계의 바다로 다시 위대한 항해를 시작한다.

격동
새 역사를
시작하다



일제강점기, 갑문에서 바라본 인천항 선거(왼쪽) 출처 화도진도서관 140년의 기다림 끝에, 2023년 10월 14일 일부 개방한 인천 내항(오른쪽)

역동
세상을 움직이다

어둠 속 찬란히 빛나는, 송도국제도시

격동의 시간은 역동적인 성장으로 거듭났다. 산업화의 거센 물결 속에 인천은 대한민국을 힘차게 이끌었다. 전국 노동자들이 꿈을 찾아 인천으로 왔다. 우리 땀과 노력이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었다. 그 힘을 동력으로 국제공항이 새 날개를 펴고,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이 새 지도를 그렸다.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세계인들과 기업들이 인천으로 몰려들었다. 인천은 국제도시의 기반을 완벽히 구축했다.



생동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인천은 동사다.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인다.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 힘은 The First Mover,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300만 인천 시민에 기인한다. 우리는 인천이다. 서쪽 바다처럼 고요하지만 강렬하고 순간 세찬 기운으로 세상을 압도한다. 하루하루를 일깨우는 역동적 움직임으로, '세계 10대 도시'를 넘어 세계 초일류도시로 당당히 선다. 저 높은 이상을 향해 화려하게 날아오른다.



역겹의 시간이 빛은 절대 비경,
백령도 두문진(위)
세찬 기운으로 파도가 밀려드는,
소야도 죽노골 해변(아래)

파동
거대한
물결을 이룬다



초일류 미래도시를 향한 몸짓, 인천시립무용단

잔잔한 수면 위로 파동이인다. 인천 깊숙이 내재된 강인한 힘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 거대한 물결을 이룬다. 섬과 섬 사이 하늘과 연이은 수평선, 그 너머로 가없이 펼쳐지는 심연의 바다. 그 거칠고 걸잡을 수 없는 세계에 정면으로 맞서 살아왔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다. 내일, 세계의 중심에서 위대한 인천의 새 역사를 쓴다.



인천의 진산¹⁹⁸⁴ 문학산 정상에서 열리는 문학산 음악회. 문학산 정상은 2015년 10월 15일, 50여 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2,000여 년 전, 문학산에 올라
미추홀을 세운
강인한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은,
우리가 밟고 선 이 땅에
면면히 흐른다.

감동
진정성의
힘으로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진정성.
인천의 꿈을 이루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일이다.

마음이 먼저다. 300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진정성. 인천시는 '균형', '창조', '소통'의 가치를 내걸고 진심 어린 마음과 따뜻한 배려로 시민과 소통해 왔다. 약속은 지켜졌고, 시민 삶에 아름답고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왔다. 가슴에 뜨겁게 품은 '오직 인천, 오로지 시민 행복'. 이제 인천의 미래에 희망을, 시민의 삶에 행복을 채울 시간이다.

INCHEON THE GREAT FLIGHT

인천, 그 위대한 비상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1 출발선

‘제3의 개항’으로 위대한 인천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더 크고 높은 세상으로 날아오르기 위한 출발선 앞에 선다.



#2 이륙

드높이 날아갈 준비가 다 되었다. 동력이 되어줄 엔진은 강하고, 비바람에 맞설 두 날개는 견고하다.

#3 비상

‘인천의 꿈’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이 무한한 잠재력의 바다를 넘어, 무궁한 가능성의 하늘로 눈부시게 비상한다.



#4 착륙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꿈이 아니다. 눈앞의 현실이고 다가올 미래다. 세계의 하늘을 누비던 인천의 마지막 목적지는, 1,000만 인천의 품이다.

인천, 세계의 하늘로 높이 날아오른다

끝을 알 수 없는 하늘은 인천의 무대다. 날개를 활짝 펼치고 더 높은 하늘로 더 넓은 세계로 힘껏 날아오른다. 때때로 난기류에 휩쓸려 휘청거릴지라도, 어제와 오늘을 축적한 역사적 경험과 미래 비전, 1,000만 인천의 힘을 동력으로 우리는 결코 비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1의 개항(開港)으로 변화의 전기를 맞고 제2의 개항(開航)으로 진화의 발판을 힘차게 디뎠다. 그리고 오늘 제3의 개항, 최초를 넘어 최고로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하늘로 높이 날아오른다. 세계 중심에서 위대한 인천의 새 역사를 쓴다.

세계의 하늘 그 너머에 인천

하늘은 변화무쌍하다. 예고 없이 밀려드는 검은 먹구름과 세찬 비바람이 앞을 가로막기도 한다. 하지만 목적지를 향해 날아오르는 긴 여정 속 찰나의 순간이라 믿는다. 처음 10미터 조수 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인천호가 닻을 올렸을 때도, 가없이 펼쳐진 바다 너머로 향해하고 세계의 하늘로 솟구쳐 오를 때도, 때론 흔들리고 내려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럴지라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꿈꾸기에 도전하고 도전하기에 이룰 수 있었다. 초일류 미래도시를 향한 인천의 비상은 계속된다. 세계의 하늘 그 너머에, ‘오직 인천’이 있다.

- 1 — 화보 <The First Mover, Incheon : 인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 2 — 스토리텔링 북 <인천, 그 위대한 비상 : Incheon the Great Flight>



인천광역시 단행본 2종이 인천 시민을 찾아간다. 화보 <The First Mover, Incheon : 인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는 격동(새 역사를 시작하다), 역동(세상을 움직이다), 생동(결코, 멈추지 않는다), 파동(거대한 물결을 이루다), 감동(진정성의 힘으로)을 섹션으로 인천의 역사, 문화, 자연, 산업 등 1,000만 인천의 힘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스토리텔링 북 <인천, 그 위대한 비상 : Incheon the Great Flight>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쓴 인천이 더 큰 세상으로 비상하는 모티브로 스토리텔링했다. 이 두 권의 책에 인천의 어제와 오늘, 더 찬란히 빛날 내일을 담았다. 엽서를 포함한 패키지로 제작해 특별함을 더한다. ※ 발간될 2종의 서적은 포털 및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인연 ／ 仁緣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임학현 포토디렉터

어느덧, 서른. <굿모닝인천>이 1994년 1월 <내고장인천>으로 시작해 올해로 창간 30주년을 맞았습니다. 17년 전, <굿모닝인천>을 처음 만나 책의 반평생이 넘도록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인천의 섬, 바다 그리고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히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발걸음이 남긴 흔적을 밟았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아 올리는 인천의 역사와 마주했습니다.

인생^{人生}에서 만난 아름다운 인연^{仁緣}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취재 영상 보기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년 전 가을, 강화도에서 만난 한 청년 사진가. 이름은 김재민, ‘기억,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담아드리고 싶은데, 어머니들이 ‘주름을 펴달라, 얼굴형을 깎아달라’ ‘성형’을 원해서 난감하다며 순박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자란 그는, 훗날 어르신들의 영정 사진을 찍어드리는 것이 소원인 속 깊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이 그달 <굿모닝인천>의 표지를 밝혔습니다. 봄날의 들판처럼 환히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으로 긴 인생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강화풍물시장엔 지금도 오일장이 열립니다. 할머니들이 보따리를 푸는 자리엔 싱그러운 초록빛 들판이 펼쳐집니다. 뭐라도 사 먹어라, 장사하시던 한 어르신이 가는 발길을 불러 세워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손에 꼭 쥐여 줍니다. 아무리 마다해도 소용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서 다 주고만 싶다고. 여린 것, 흔한 것, 못한 것 할 것 없이 자연의 산물도 다 소중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살면서 잊어버리는 인생의 가치를 길 위에서 배웁니다. “내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어찌 아나. 꼭, 한번 다시 와라.” 장이 열리는 봄날, 더 늦지 않게 할머니를 뵈러 가야겠습니다.

때로 사랑하던 공간이 사라지며 가슴에 아프게 박히는 순간도 있습니다. 중구 관동의 제일사우나. 창업자인 아버지가 ‘손님과의 약속이다. 적자가 나도, 절대 문 닫지 말라’던 목욕탕이 58생을 일기로 수증기처럼 사라지던 날. 사장님은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자책하고, 일흔하나의 세신사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으며, 단골 ‘뽕야 아주머니’는 문 닫는 날까지 목욕탕을 찾으며 미련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던 공간이 추억 너머로 사라져 버리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안녕을 고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기록으로나마 기억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30년, 긴 시간입니다. 가슴으로부터 떠오르는 이 모든 사람과 기억이 오늘 <굿모닝인천>을 있게 했습니다. 인천이 가슴에 와락 다가오도록, 사진 한 장 글 한 줄에 사명감을 다져 넣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인천 시민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에, <굿모닝인천>이 세상에 362번째 발자국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人生}은 인연^{仁緣}들로 아름답습니다. 이제 30년, 씨실과 날실로 빛나는 시간을 엮어가며 우리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굿모닝인천>의 30년. 그 짧지 않은 시간, 인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만났습니다. 평범하지만 빛나는 사람들의 삶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웃음이 묻어나고 눈물이 배어 있는 그 모든 순간이, 인천의 역사입니다.

<굿모닝인천> 2017년 10월 호의 표지 ‘젊은 강화로^로’의 주인공 김재민.

그는 훗날 카메라를 놓았고, 뒤로 보이는 동문 안길 현대 사진관은 이제 없다.



시간



강화 장날에 만난, 송순임 할머니.

“다 주고만 싶어” 어렵게 살았어도 베풀 줄 아는 그에게서 인생의 가치를 배운다. 오글쭏글 주름지고 검버섯이 꽃처럼 핀 얼굴. 어여쁜 그 얼굴 위로 봄 햇살이 살금살금 비춘다.

30년, 가슴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온 아들.

‘관동 2가 8번지’, 아버지의 자리다. 제일사우나 김근동(사진) 대표의 아버지가 1965년 문 연 제일사우나. 58년간 이 동네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다 지난해 초 문을 닫았다.



책 연



배다리 '스페이스 빔'에서 광은비 씨
그가 그러모은 학익동의 시간



로컬 아키비스트 곽은비

까만 눈동자가 반짝인다. 이제 막 서른 살이 되었다. <굿모닝인천>과 같은 나이다. 인천에서 눈뜨는 아침, 그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매일이 새롭고 설렌다.

로컬 아키비스트 Archivist, 곽은비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지역의 기록을 수집하고 보관, 관리하는 기록 활동가다. 인천을 가슴에 품고 책을 쓰고, 아카이빙 채널 인스타그램 @hagik_archive을 운영하고 전시도 한다.

살아가는 동네를 그는 사랑한다. 중구 동인천동에서 태어나 미추홀구 학익동에서 유년 시절부터 지금껏 머물러왔다. 그 시대부터 오늘을 사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듯 아파트가 그의 집이다. 네모 반듯한 콘크리트 건물이 숲을 이루지만 삭막하지는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웃, 친구들과 부대끼며 살았다. 떠오르는 기억은 따스하고 정겹다. 시멘트 바닥에서 땅따먹기하고

구슬치기를 하다, 해가 뉘엿뉘엿 지면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학교를 오가던 길은 어느덧 출퇴근길이 되었다. 가파른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 동네도 점점 변해갔다. 사람이 하나둘 떠나고 풍경은 빛바래져 갔다.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더니 철거 표식이 나뉘고 펜스가 높다랗게 쳐졌다. 그 길을 걷는 발걸음이 자꾸 더디고 무거워진다. 그렇게 빛나던 시간을 기록으로 붙잡겠노라, 다짐했다.

돌아보면 <굿모닝인천>이 그 시작이었다. 책상에 묶여 있던 고등학생 시절, 책만 펼치면 인천의 역사적 장소와 숨은 공간으로 언제든 떠날 수 있었다. 노트에 꼼꼼히 적어놓고 훗날 찾아가기도 했다. 글과 사진으로만 보던 장소를 두 눈에 담으며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져갔다.

“30년 동안 <굿모닝인천>이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 건 인천의 역사와 삶을 기록해 왔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깊이 있고 진정성이 담긴 이야기로, 40년, 50년 후에도 시민의 가슴에 남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사랑하는 인천이, 서른 살 동갑내기 <굿모닝인천>과 그를 하나로 이었다.

애독자

홍혁기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반갑게 알은체를 한다. 내 이름 세 글자가 새겨진 글도 꼬박 챙겨 본다고 했다. 미안하게도 나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기사를 찾고서야 생각이 났다. 8년 전, <굿모닝인천>을 통해 시민의 가족 앨범을 공모한 적이 있다. 사적인 공간에 숨겨진 인천을 본다는 취지였지만, 한 가족의 순간순간이 담긴 보물 상자를 여는 일은 쉽지 않았다. 단 서너 번 만에 연재는 끝났다. 홍혁기(50) 씨는 가족 앨범을 공개한 첫 번째 독자였다.

오늘, 다시 만난 그의 품에는 <굿모닝인천>이 안겨 있었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특별판, 편집진도 챙기지 못하고 지나친 특집호 아닌 200호, 300호 특집호, 지난달 발간한 창간 30주년 호까지. 그리고 책 12권에 선명히 새겨진 ‘올웨이즈 인천 all_ways_Incheon’. 2018년에 책자를 매달 모아 차곡차곡 쌓으면, 책등으로 인천시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완성되는 이벤트를 했었다. 이마저도 정성스레 모아 자랑스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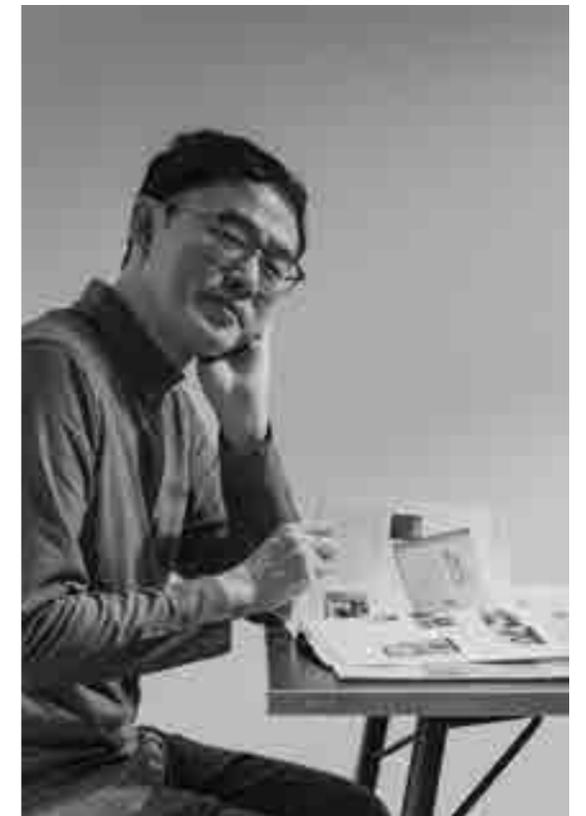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다. 책장을 손으로 만지며 넘길 때의 정서적 교감, 가지런한 서체와 디자인을 볼 때의 즐거움, 손때 묻은 책을 서가에 꽂을 때의 충만함, 아름다운 장정의 책을 선물할 때의 기쁨을... 책을 읽는다는 건 또 만든다는 건, 촉감으로 향기로 기억을 두고두고 간직하는 일이다.

“책 한 권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 다해 노력하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 책을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언젠가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가 ‘우리 시에도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이런 월간지가 나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다 기분이 으쓱했습니다.” 책을 만드는 사람에겐 책을 읽어 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다. 시민이 있기에 <굿모닝인천>이 있다.

“앞으로, 40호 발간 때도 모셔야겠어요.”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답한다. “그럼요. 다음 호가 362호니까, 400호가 되려면 딱 3년 2개월 후네요.” 책연으로 맺어진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약속했다.

손때 묻은 책을
서가에 꽂을 때의 충만함.
책을 읽는다는 건,
촉감으로, 향기로, 추억을
두고두고 간직하는 일이다.

가족 앨범을 실은 8년 전
<굿모닝인천>을 보는 홍혁기 씨



‘책연’은, 책으로 이어지는 인연을 말한답니다. <굿모닝인천>과 오랜 시간 눈빛을 맞추며 온기를 나누어 온 소중한 인연들을 만납니다. 사람과 마음, 희망을 있고 시민과 시정을 잇는 인천시의 책연은 계속됩니다. 살아가며 마주하는 매 순간, 인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포토저널리스트
김성환



<굿모닝인천>과 함께 인천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를 기록한 김성환 작가

그 긴장과 떨림, 다소 상기됐지만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자세가 사뭇 진지하다. 시립무용단 오디션을 앞둔 무용수의 옆모습, 1997년 4월 호 <내고장인천>의 표지다. 당시로서는 독자들 사이에서 회자할 만큼 신선하고 파격적이었다. 이 작품으로 그는 처음 인천과 만났다.

포토저널리스트 김성환(57), 27년 인천의 긴 시간과 공간 속에 그가 있었다. 처음엔 그저 먹고사는 일이었다. 당시 표지 사진을 찍고 받은 돈은 단 2만 5천원. 좋고 싫을 것도 없이 한 달 한 달 그저 주어진 대로 묵묵히 일했다. 타고나길 책임감이 강하고 최선을 다할 줄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곳이 산이든 바다든 섬이든 도시의 아래든, 하늘 위든 그 어디라도 갔다. 그리고 몰입했다. 시각뿐이 아니다. 뷰파인더 너머 세상에 온 감각을 집중해 외면받고 숨겨진 곳까지 기어이 찾아내어 셔터를 눌렀다. 카메라를 든 순간만큼은 피사체 외에 세상 모든 것을 철저히 차단했다.

지금까지 30만 컷 이상의 사진으로 인천을 담았다. 도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명감이 그 무게를 더해 갔다. “2000년대 초 허허벌판이던 송도국제도시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초경량 항공기를 타고 갯벌을 메워 새 땅을 만들고 도시를 세우는 과정을 사진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작가로서 가치 있는 기록을 남겼다는 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처음 인천을 만났을 땐 가슴에 물음표가 떠올랐다. 지금은 답을 찾았다. “인천의 가장 큰 매력은 역동성이예요.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 조감도로 본 미래가 짧은 시간 안에 현실이 됐지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도시, 더 밝은 내일을 확신합니다.” 오늘 상상하는 인천의 미래가 그의 사진 속에 현실로 펼쳐질 그날을 기다린다.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시간 속에 그가 있었다. 인천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리라. “어쩌면 태어난 고향보다 인천을 더 아끼고 사랑해요. 작가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법은 사진으로 각인해 세상에 오래도록 남기는 일입니다.”

서른에 인천을 만나 어느덧 살아온 만큼의 시간을 보냈다. 긴 세월 온 힘을 쏟아 내며 움직인 몸은 이제 카메라를 들기도 버거울 만큼 닳고 망가져 버렸다. 하지만 괜찮다. 자신의 자리에서 인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묵묵히 써 내려오지 않았던가.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같은 뜻을 품은 누군가가 이어가고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내 사진을 보고 ‘이 사람, 오랜 시간 참 열심히 인천을 담아왔네. 기억할 만한 사람이야’라고 말한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사진작가로서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긴 시간 그와 함께 인천을 파고들었던 내가, <굿모닝인천>을 한 컷 사진으로 마음에 두고 간직하는 독자들이 안다. 그는 인천이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사람이다.



그의 첫 인천 작품, 1997년 4월 호 <내고장인천>(위)

27년 긴 인천의 시간과 공간 속에 그가 있다. 그곳이 산이든 바다든 섬이든 도시의 아래든, 하늘 위든 그 어디라도 사진으로 붙잡아 기록했다.

2001년과 2021년 그가 항공촬영으로 기록한 송도국제도시. 상상을 현실로 일궈낸 20년 시간이 있다.



I AM

인천, 행복 지도를 그린다

2026년 7월 이전의 인천과 이후의 인천으로 구분될 것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 사진 최준근 자유기고가

제물포구민
서구민



영종구민



검단구민

인천시가 현 2군·8구에서 2군·9구로 바꾸는 내용의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22년 8월 31일이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은 84.2%를 기록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는 인천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데 밑그림이 됐다.

<굿모닝인천>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안이 확정된 뒤, 해당 지역을 찾아 주민들에게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기대감과 소망을 들어보았다.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등 인천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지역들이다.



취재 영상 보기

66

중구와 동구는 인천의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서 제물포라는 이름으로 인천의 현재와 미래를 든든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2026년이면 인구 70만을 넘는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되는 것은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장성을 상징합니다. 중구에서 영종구가 분리되는 것 역시 공항 경제권과 글로벌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인천의 새로운 얼굴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인천은 2026년 7월 이전의 인천과 이후의 인천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 유정복 인천시장

99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 추진 일지]

추진 체계 마련

- 2022. 08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안 발표
- 2022. 10 행정 체제 개편 인천시-3개 구 업무 협약
- 2022. 10~ 실무 TF 및 시민소통협의체 구성

지역 의견 수렴

- 2023. 03~04 주민 설명회 개최(18회, 1,800명 참여)
- 2023. 04~05 주민 설문 여론 조사 실시(84.2% 찬성)
- 2023. 05~06 지방 의회 찬성 의결

법률 제정 추진

- 2023. 06 정부 공식 건의
- 2023. 09~ 정부 입법 절차 추진
- 2024. 01 국회 의결

+ + + +

2026년 7월 1일, 인천은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에 서게 된다. 민선 9기가 시작되는 이날부터 인천시 행정 체제가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9구로 바뀌기 때문이다.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8구 체제가 31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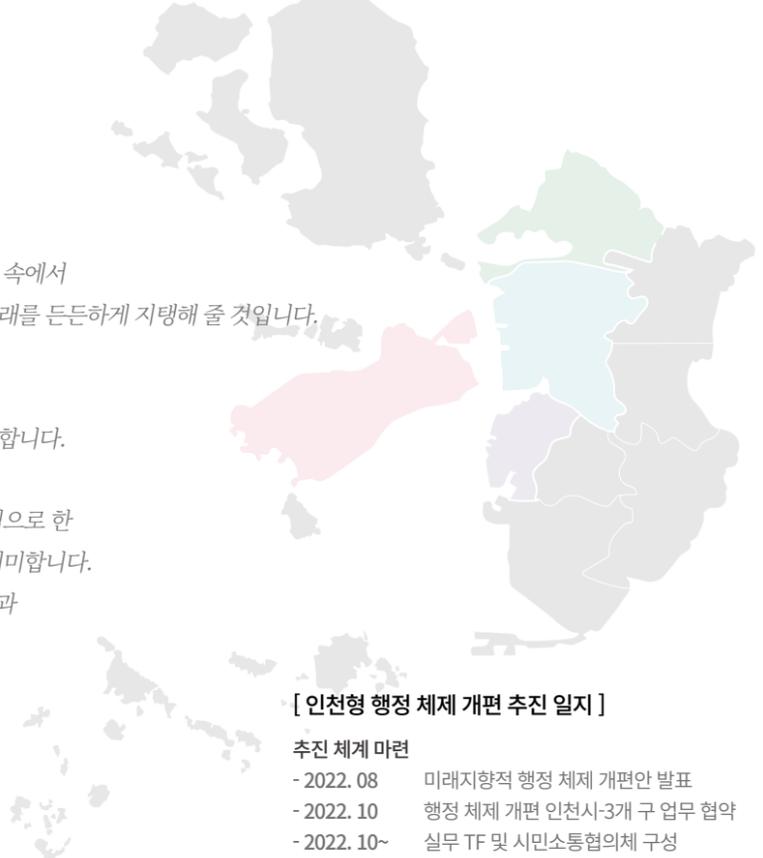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안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는 물론이고, 미래 행정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맞춤형 지역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제물포구의 경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경제 재도약을 추진,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영종구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거점 도시

로서 공항과 연계해 항공 정비 산업과 복합 관광 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서구는 인천대로 일반화와 연계한 원도심 균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 금융·유통 산업 중심의 특화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검단구는 북부권 종합 발전 계획을 통해 교통·첨단 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고 산업과 주거 환경이 어우러진 자족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은 자치 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 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행정 체제 개편은 대부분 중앙 정부 주도로 추진됐다. 그만큼 대한민국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 발전에 획을 그은 성공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인천 역사에 남을 중대한 발걸음이자 인천 발전의 교두보가 될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 2026년 7월, 새로 그려질 인천의 지도는 '시민 행복 지도'다.



I AM + 제물포구민



66 인천의 본산, 과거의 영광 되찾아야죠!

손강식(71) 씨
(동구 만석동 주민자치회장)

99



인구 **102,000**명
면적 **21.7**km² (현 중구 내륙 + 동구)

발전 방안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경제 재도약을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

“동구는 제가 태어나 줄곧 살아온 지역입니다. 한국전쟁 때 월남해 정착한 부모님의 뒤를 이어 70평생 희로애락을 겪은 삶의 터전이죠. 그만큼 애정이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현재 만석동 주민자치회장을 맡아 동네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원래 중·동구는 인천의 본산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으로 제가 사는 만석동만 하더라도 크게 번성했어요. 외항선이 들어오면 중·동구에 돈이 넘쳐나던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구도심으로 전략해 가장 쇠퇴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인구 감소와 도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신도시와의 격차로 인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중·동구 구도심권을 신도시와 연계한 혁신도시로 집중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중구와 동구가 합쳐져 ‘제물포구’로 다시 태어난다는 소식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구도심 지역에 특화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특히 지난해 말에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발표된 것과 맞물려 더 큰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이번 행정구역 개편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구도심에 대단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다만 행정기관에서 구도심에 맞는 행정 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 그리고 그 시스템에 따라 얼마나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개발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요즘 주민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만석동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처럼 부풀어 오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물포구 출범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구가 인천의 출발지로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꿈을 꿉습니다.”

동구의 모습이 내려다보이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앞에서, 손강식 시민



I AM + 영종구민

66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영종을 꿈꿔요.

김진미(36) 씨
(문화예술기획자/영종학부모연대 공동대표)

99

려면 일단 제2청사에서 업무 하나 보고, 다시 본청에 가서 또 업무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 타고 육지로 나갔다가 일 보고 다시 배 시간 맞춰서 배 타고 들어오는 식이죠.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이용할 수 있지만 통행료와 거리, 시간 등을 감안할 때 배를 이용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 배를 자주 이용해요. 영종도에 종합병원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에 기대가 커요. 영종도가 영종구라는 자치구로 새롭게 출범한다면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행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겠지요. 자치구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관들도 들어서 주민편의도 증진될 거고요. 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문화 공간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기관 또한 하나둘씩 생겨나지 않을까요? 영종구가 출범하면 아무래도 더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종구 출범은 가장 큰 바람이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2026년 7월을 기다리고 있어요.”



인천대교가 보이는 씨사이드파크 산책로에서, 김진미 시민



인구 **111,000**명
면적 **125.8**km² (현 중구 섬 지역)

발전 방안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거점도시로 공항은 물론이고 항공정비산업과 복합관광산업을 육성

“이사해야 할 시점에 우연히 영종도에 바람 쐬러 왔다가 바다와 산, 너무 예쁜 자연경관에 매료됐어요. 가족들과 지내기 좋고, 아이 교육에도 좋을 것 같더군요. 1~2년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이사를 왔는데 5년째 살고 있네요. 그런데 모든 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우선 영종 지역이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적으로 혜택이 아주 적은 게 아쉽더군요. 특히 내륙 지역과 섬 지역이 같은 행정구역에 묶여 있다 보니 불편한 게 많아요. 처음 이사 왔을 때에도 중구청 제2청사가 있기는 했지만, 제2청사에 모든 부서가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어떤 행정 서비스를 받으

I AM + 서구민

66 아예 '서구'라는 명칭도 바꾸면 어떨까요?

정은선(51) 씨
(공동체 라디오 서구FM 대표)

99

“서울에서 살다가 아이 둘 낳고 서구에 와서 20년째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주민자치회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주민들과 함께 ‘마을공동체 라디오 서구FM’ 방송을 만들고 있어요.

평소에 서구 분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가 보다 서구와 검단구로 나뉘는다고 하니깐 일단 행정적인 부분에서 기대가 돼요. 서구 인구가 60만 명이 넘으니 분구가 되면 아무래도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지도상 서구가 위아래로 길게 생긴 데다가 면적도 꽤 넓은데 주민 이동 등 공간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보다 행정 체제가 개편되면 행정기관에서도 서구 원도심에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지금 서구의 많은 구도심 주민은 청라신도시,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에 정책이 쏠리는 것에 비해 구도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미미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사실 구도심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많거든요. 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가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것들인데 이 기회에 서구에 특화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고 환경 관련 문제도 많이 개선되는 계

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또 서구는 인구에 비해 문화시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를 찾아 서울이나 다른 외곽으로 나가는 주민이 많은데 서구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이나 생활 문화시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참에 ‘서구’라는 명칭도 바꾸는 방안을 생각해봤으면 해요. 남구는 이미 미추홀구로 바뀌었고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로 새롭게 출범하면 일제강점기의 방위 개념에서 비롯된 행정구역 명칭은 서구만 남게 되잖아요. 2026년 7월 행정체제가 개편될 때 서구의 이름도 예쁘고 현대적이고, 역사와 문화에 맞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조형물 'Full moon 2014' 앞에서, 정은선 시민



인구 **391,000**명

면적 **71.31**km²

(현 서구 남부 지역)

발전 방안

인천대로 일반화와 연계한 원도심 균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금융·유통산업 중심의 특화 도시로 조성

“7대째 검단에 살고 있는 검단 토박이입니다.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으로 인해 검단 분구가 확정된 것에 대해 검단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구 행정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 검단 주민들은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서구청 검단출장소가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이 밖에도 검단 주민들로서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교육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도시 기반시설, 특히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도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된 뒤로는 열악한 환경과 재산 가치 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안고 있고요.

검단이 자치구로 새롭게 출범하면 지금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나 민원, 숙원 사업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분구가 되면 검단구 청사에서부터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여러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 등 준비해야 할 게 많을 것입니다. 자치구인 만큼 국비나 시비 등이 아무래도 검단구에 어느 정도 집중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지요.

그런데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검단의 속제는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시간을 좀 갖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기다릴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야 자연친화적인 자족형 도시, 살기 좋은 검단구로 거듭나리라 생각해요.”



인구 **209,000**명

면적 **47.74**km²

(현 서구 북부 지역)

발전 방안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교통·첨단산업 중심도시로 성장, 산업과 주거 환경이 어우러진 자족 도시

I AM + 검단구민

66 자연 친화적인 자족형 도시로 거듭나길

한규창(53) 씨
(서구 당하동 주민자치회장)

99

검단선사박물관 뒤편 고즈넉한 공원에서, 한규창 시민





인천경찰청 노지영 경장, 박영준 경사 (경인방송 라디오 출연 모습)



이창길 개항로프로젝트 대표

마계인천의 반격

'악마의 세계, 인천'이라니. 느닷없는 멸칭(蔑稱)에 얼마나 많은 인천 사람이 가슴앓이 했던가. 한데 어디에선가 '마계 인천'이란 단어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신비스럽고 평범하지 않다'며 애정하고, 개항로의 청년들은 '마계인천'을 앞세운 로컬 프로젝트로 못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오만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이 단어를 우리의 방식대로 점유하고 풀어내는 인천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최준근 포토디렉터



취재 영상 보기



66

우리의 방식대로 점유할 수 있다면
마계는 더는 오명이 아닌 매혹적인 별칭이 되겠조
- 이종범 <스펙타클> 편집장
99



스펙타클 마계인천 스티커팩



두근두근, 팩트 체크

안전, 경제·인구 추이

오만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열폭'하고 피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도시는 묵직하고 빠르게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그리하여 이제는 과감하게 정체를 드러내놓고 정면승부를 펼칠 때다. 범죄 도시 이미지 먼저 짚어 보자. 선입견 탓에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객관적 지표를 들여다보면 우리 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하다. 인천은 교통문화지수, 지역안전지수 높은 도시 1위, 중요 범죄 검거율 전국 1위의 자리에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대비 교통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도시다. 인구는 증가(특·광역시 유일)하고, 안전도는 높아진 유일한 도시인 셈이다. 이 정도면 '압승'이다. 경제 수치는 그야말로 눈부시다. 경제성장률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GRDP(지역내총생산) 104조를 달성해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진입했다. 이제 인천은 '글로벌 10대 도시'를 향해 나아간다. 이미 대중에게서도 싱긋 웃으며 '그래. 그거 내 별명인데, 제대로 알려줄까?'라고 응수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인천사람들을 위한 잡지 <인천 스펙타클> 2호 '두근두근 마계인천'은 일명 무법의 '도봉산' 학교 전설 등 우리가 살아가는 인천의 오해와 진실을 파헤쳤다. '마계도시를 금기어로 가두어, 우리 스스로 그 안에 갇힐 필요는 없다. 이 단어를 우리의 방식대로 점유할 수 있다면 마계는 더는 오명이 아닌 매혹적인 별칭이 될 것이다.' (이종범 <스펙타클> 편집장) 그의 말처럼 우리의 판을 펼칠 때가 도래했다.

가장 안전한 도시

교통문화지수·지역안전지수

1 위



출처 교통안전공단, 행정안전부

중요 범죄 검거율

1 위



출처 경찰청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

GRDP 경제성장률 전국 최고

104 조 5 천억 원

(GRDP 순위: 서울 > 인천 > 부산 > 울산 > 대구)



2023년 마계인천 페스티벌



“마계인천에서 색다르게 놀자!”

이창길 개항로프로젝트 대표

일찍이 2018년부터 인천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개항로의 오래된 골목에 아지트를 세운 이창길(45) 대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요즘 '마계인천'이 따라 붙는다. 마계인천 페스티벌, 마계대학 협업 스쿨, 마계가도(인천쇠주를 개발 중이다).

“Keep the Portland Wired!” 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젊음의 도시 포틀랜드의 도시 슬로건입니다. 거리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시작된 축제의 슬로건이었는데, 도시 전체의 분위기와 감성을 바꿨습니다.”

그는 ‘인천을 낫설게, 색다르게, 조금 이상하게’ 보여 주는 판을 만들어, 생각이 통하는 이들이 즐기는 ‘마계인천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축제는 도시를 ‘악마의 세계’로 묘사했지만 저의 속내는 ‘부정적인 편

견을 지우고, 무한한 가능성이 넘치는 도시’로 다시 정의하자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힘이 넘친다. 그리하여 9월의 어느 아름다운 가을, 평상 포크(개항로통닭), 사랑은 보사노바를 타고(일광전구 라이트하우스), 드렁큰 빈티지 마켓(개항백화), 신해철 음감회(동인천다방), 마계 스테이지(진7080라이브)와 같은 다채로운 예술판이 벌어졌다. “인천은 매력이 많은데, 아직 매력적이진 않아요. ‘인천이라는 원석’이 여기 있습니다. 로컬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끈들, 얼른 들어와서 같이 놀시다!” 개항의 역사, 원도심의 골목, 168개의 보물섬, 국제도시... ‘인천의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다. 자긍심을 갖고 고운 눈으로 보면 이야깃거리가 넘쳐난다’는 그의 말이 가슴에 오래도록 남는다.



66

향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가벼운 콘텐츠도 도시의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 김대영 인천시의원

99

66

단어의 뜻을 색다르게

치환하는 것도 새로운 홍보 전략 아닐까요

- 김용희 인천시의원

99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B급 감성”

김대영, 김용희 인천시의원

‘광고 카피만 카피냐, 남의 마음을 흔드는 건 다 카피다’(이원홍 카피라이터)라는 말을 빌리자면, 마계인천이란 단어는 분명 매력적이다. 고담대구, 갯소오브부산, 라쿤광주 등 여러 도시의 별명 중 단연 인지도가 높다. 인천의 한 시민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됐던 2000년대 초반에 생겨나 20년 넘게 회자될 만큼 기억에 남고, 입에 착 붙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인천의 젊은 두 시의원도 ‘마계인천’을 적극 활용해, ‘인천의 개성을 제대로 알리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대영(31) 의원은 “이미지를 재창조해 보자.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42) 의원도 “이제는 ‘개성 있는 도시의 별명’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다. 귀엽고 감쪽한 ‘마계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피력했다.

김용희 의원은 최근 연재를 시작한 웹툰 ‘와라! 인천 마법의 세계로’를 예로 들며 “‘마법의 세계, 마법이 계속되는 인천...’ 등 단어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치환하는 것도 새로운 홍보 전략”이라며 차별화된 도시 브랜딩을 주문했다. 할 게 너무 없어서 재미없다는 ‘노잼 도시’ 대전이 빵 축제로 맞아 아쳐 ‘유잼 도시’가 된 것처럼 말이다.

“행정에도 B급 감성이 필요합니다. 향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가벼운 콘텐츠도 역할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의 말처럼 멸칭은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의 애칭이 될 수 있다. 마계를 ‘매혹적인 별칭’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웹툰에 녹이는



인천 사랑

웹툰 <와라! 인천 마법의 세계로>의 작가 지강민

- "인천은 추억의 타임머신 같은 도시"
- "인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 "「와라! 인천 마법의 세계로」 연재는 운명"

사진: 김민준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마법 소녀 '미르'. 어느 날 스승님의 방을 청소하다 마물의 알들을 보관한 상자의 봉인을 풀어버리고 만다. 세상으로 나온 마물의 알들이 숨은 곳은 '인천'이라는 '이세계異世界' (다른 차원의 세계). 미르는 인천 곳곳에 숨겨진 마물의 알을 찾아 나선다. 지난달 18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에 연재되고 있는 "와라! 인천 마법의 세계로" (이하 '와라! 인천')의 작가 지강민(44) 씨는 인천 토박이다. 신항동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녔다. 그러다 보니 인천에서 살아보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사를 가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탐색하는 것이 어린 시절의 취미였다. 이제 인기 웹툰 작가가 된 그가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으로 '와라! 인천'의 주인공 '미르'를 안내하고 있다.

Q.01

인천에서의 성장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만큼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버스표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부평에서 주안 집까지 4시간 걸려 걸어간 기억 등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특별한 기억보다 일상의 기억들이 제겐 더 소중한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버스를 타고 등하교하며 창문 밖으로 보던 인천의 소소한 풍경들이 제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풍경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제 작품 속 유쾌하고 밝은 캐릭터들을 만드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02

작가님께 고향 인천은 어떤 도시입니까?

아마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전 인천 토박이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여러 지역을 살아온 만큼, 어딜 가도 친숙하고 편하고 정감이 가득해요. 그게 아마, 인천이 지금도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와 본가에 갈 때나 인천을 돌아다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다다랐을 때, 당시 살던 얘기를 하면 아내는 제가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신나한다며 재밌어하거든요. 제게 인천은 어린 시절을 함께하고 그 추억을 지금까지도 간직해주고 있는 타임머신 같은 도시입니다.

Q.03

인천 사랑이 각별하신데, 작가님이 바라는 인천의 미래상이 있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제 추억을 지켜주는 고마운 인천의 모습도 있지만, 요즘 제가 만나고 있는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송도국제도시 등을 시작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가 크고요. 물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제 추억 속의 옛 모습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잘 보존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이번에 '와라! 인천'을 작업하기 위해 자료 조사를 하면서 더욱 강해진 것 같습니다.

Q.04

고향을 소재로 웹툰을 연재하는 만큼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오랫동안 인천에 살아오면서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천은 참 살기 좋은 도시인데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 하는 아쉬움이었죠. 그런데 마침 이런 좋은 취지의 연재 제의가 들어와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인천에 대해 알려주자! 그것도 내가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인천시와 함께하고 인천 시민들도 볼 거란 책임감에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05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과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천에서 태어나 살아온 33년 동안 30번 가까이 이사를 하며 인천을 떠돌던 제가 인천을 소개하는 웹툰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만들었으니 '와라! 인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웹툰 '와라! 인천 마법의 세계로'는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하지만 정확하게 인천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인천시가 인천연구원과 함께 제작한 교육 콘텐츠다. 지난 1월 18일부터 주 2회(화, 목) 인천시 홈페이지(home > 인천소개 > 인천안내 > 인천웹툰)에 연재되고 있다. 인천만의 특색 있는 주제로, 총 30편의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연재가 끝나면 단행본으로도 출간하고 영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 외국어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Inspiration Incheon

창작의 영감을 주는 인천



글 함영연 작가

작고 어렵고 힘없는 것에 시선을 두고 동화를 쓰고 있으며, 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모처럼 하늘을 바라본다. 쾌청하다. 출강하는 학교도 서울에 있고, 단체 모임도 대부분 서울에 있으나 그 길이 불분해 인천의 하늘을 언제 보았는지 모른다. 그만큼 나는 인천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다. 그런데 돌아보니 인천에서 창작 소재를 찾고 영감을 얻어서 작가로 살아가고 있는 걸 새삼 깨달았다.

10여 년 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요양하러 인천에 왔다. 서울과 가까운 데다가 공기 좋고 사람 좋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택한 곳이다. 당시 몸무게가 10킬로그램이 빠질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 있었다.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 창작하는 일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병원 가는 날이 유일한 외출이었다.

그런 내 사정을 안 수녀님의 제안으로 보육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다. 오가는 길에 아파서 쉬었다가 가기도 했지만,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 또 아는 선생님이 초등학교에 봉사할 것을 요청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곤 했다. 자꾸 바깥 생활을 해야 아픔도 빨리 회복된다고 많은 분이 마음을 써주었다. 그분들 덕분에 점차 기운을 내서 한 학기 쉬었던 강의도 다시 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건강은 쉬이 좋아지지 않아서 작가로 사는 삶은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 출판사에서 원고 청탁이 왔다. 반가우면서도 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고민하며 생각을 궁글리고 있을 때, 우연히 강화도 문

학 기행을 가게 되었다. 문학 기행이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만, 모든 걸 내려놓고 지내던 나로서는 큰마음을 먹어야 나설 수 있었다.

강화도 부근리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을 보게 되었다. 사진으로 보았던 터라 새로울 게 없는데도, 그날따라 고인돌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고인돌을 마주하고 한참 서 있었다. 기울기가 있는데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유구한 세월을 지나온 고인돌이었다. 불현듯 '저 고인돌을 세운 돌쟁이는 자신의 돌집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다. 그 생각은 집에 와서도 줄곧 따라다녔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쓴 것이 <석수장의 마지막 고인돌>이다. 이 작품은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우수 콘텐츠로 선정되었고, 출간 후에는 한국아동문학상을 받았다. 물론 출판사에서 청탁한 원고도 마감에 맞춰 쓸 수 있었다.

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널리 알려야 하는 게 작가의 책무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 덴마크는 안데르센이 떠오르고, 우리나라도 평창 이효석(메밀꽃 필 무렵), 춘천 김유정(봄봄), 양평 황순원(소나기) 등이 떠오르는 걸 보고 든 생각이다. 그런 마음이 스며서인지, 내 책 <꿈을 향해 스타 오디션>에는 근처에 있는 남동구 남촌초등학교가 등장한다. 인천은 마음만 먹으면 찾아갈 수 있는 섬과 바다가 있어서 수려한 자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내 창작 배경에 섬과 바다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터이다.

내가 인천에 사는 걸 아는 평론가로부터 김구연(1942~2023) 시인의 작가론을 쓰고자 인터뷰하려고 하니 동행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날 만남이 시인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다. 당시도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한 달쯤 지

나서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왔다. 그 일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은 내게 다시 작가로 살아갈 푸릇한 기상을 갖게 했다. 그래서 보답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 첫걸음으로 얼마 전에 (사)국제펜한국본부 인천지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인천에 있는 단체 모임에는 처음이라 낯설었다. 하지만 다들 따뜻하게 반겨주어 감사했다. 창작 열정을 되살리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아픈 몸을 누려고 찾아든 내게 창작의 영감을 주고 창작 의지를 갖게 한 고마운 도시! 정 붙여 살면 그곳이 고향이라고 했다. 지금은 강의와 창작을 병행하며 건강하게 살고 있다. 두 번째 고향으로 자리매김한 인천 덕분이다.

인천고 고인돌 강화도 부근리



태어나 보니 인천 시민, 그래서 행복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 눈을 떴다. 여기는 인천. 나를 보는 엄마 아빠의 얼굴에 걱정이나 두려움 따윈 없다.

‘뱃속에서 들었을 때 분명 애 키우기 정말 힘든 세상이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야기한다.

“정말 다행이야. 인천형 출생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니 말아야!”

인천형 출생 정책? 그게 무엇인지 잘 몰라도 나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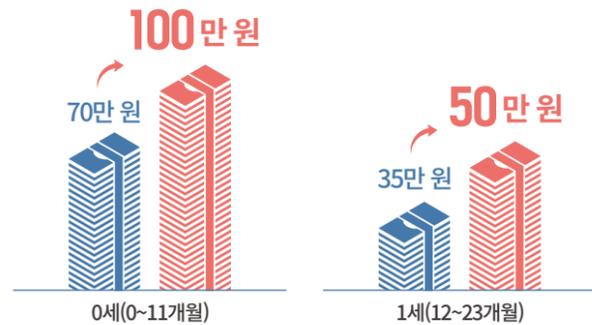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에서 태어나서!

※ 인천시 출생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요약작성한 자료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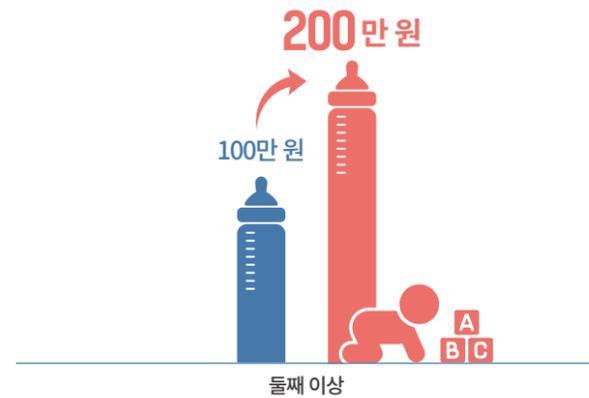


01 출생부터 든든하게 지원해요!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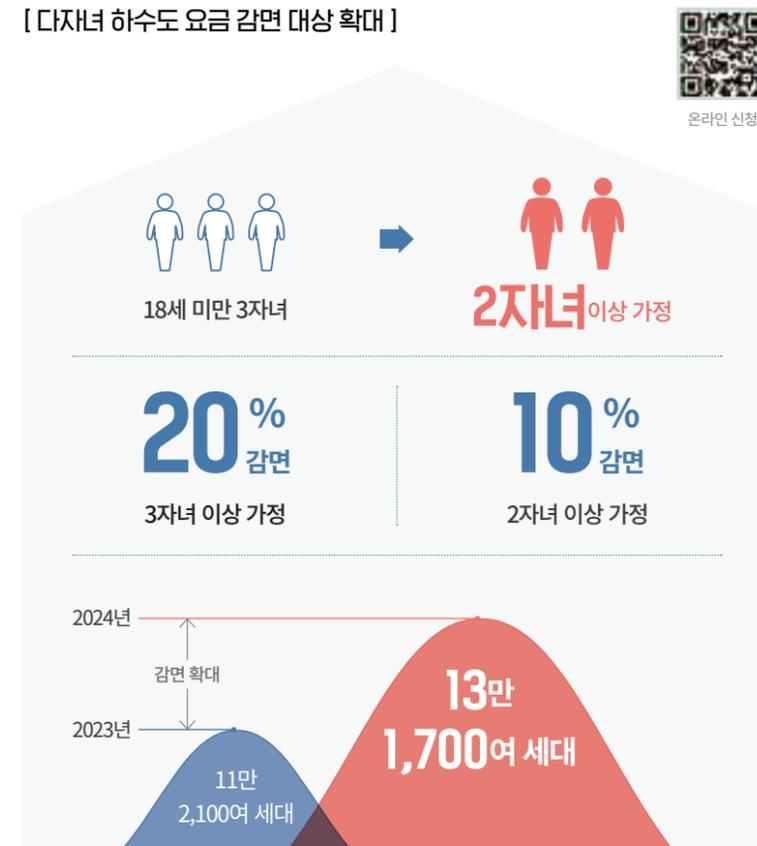
연도	합계		첫만남이용권 (① 국비 포함)	부모급여(② 국비 포함)		인천시 천사지원금(③)	
	0세 (①+②+③)	1세 (②+③)		0세	1세	0세	1세
2023	1,040만 원	420만 원	최대 200만 원	840만 원 (월 70만 원)	420만 원 (월 35만 원)	-	-
2024	1,500만 원	720만 원	최대 300만 원	1,200만 원 (월 100만 원)	600만 원 (월 50만 원)	-	120만 원 (월 10만 원)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체계적 지원]

<p>4월부터 난소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5만~10만 원, 일부 군·구 시범 사업)</p>	<p>보조생식술 비용 최대 100만 원(총 2회) 신규 지원</p>	<p>소득 관계없이 모두에게 신규 지원</p>
<p>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최대 300만 원, 본인부담금의 90%까지)</p>	<p>미숙아(체중에 따라 최대 1,000만 원)</p>	<p>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최대 500만 원)</p>
<p>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p>	<p>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 원 범위 내)</p>	<p>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p>

02 다자녀도 수도료 걱정 없어요!

[다자녀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생애 초기 건강 관리도 촘촘하게!

인천시가 올해부터 생애 초기의 촘촘한 건강 관리 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진다. 보건복지부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된 남동구에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보건소 등록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400가구로, 남동구에 주소를 둔 임신부나 출산 가정이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에 선정되면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반군 임신부는 출산 후 8주 이내 방문(최소 1회 이상)해 영아의 성장 상태 확인 및 기본 건강 관리를 지원하며, 고위험군 가정은 산전부터 아동이 2세가 될 때까지 지속 방문(월 1회 이상)해 모자 건강 상담, 지역사회 관계 형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 032-440-3224



새로운 시작

새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갔다. 친구들이 마구 밟았다. 새 신발은 밟아야 재미있란다. 다음날 다른 친구가 새 신발을 신고 왔다. 아이들이 물려들었다. 무리에는 나도 있었다. '왜 새 신발은 밟아야 재미있을까...?' 인천시립박물관의 '새끼-새것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한 이색 전시다.

색다른 전시로 즐기는 색다른 재미

인천시립박물관이 새해를 맞아 흥미로운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새끼, 주제가 신박하다. '새끼-새것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는 '새것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비슷해 보이는 건 착각일까?'라는 작은 호기심이 그 시작이다. 새로움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새것과 마주한다. 그때 한국인이자 공감을 만한 행동 패턴을 전시에 담았다.

구성은 크게 네 가지로 이뤄진다. 새로운 시작(새 학기, 새 직장), 새로운 사람(친구, 연인, 생명), 새로운 물건(차, 집, 신발, 핸드폰, 별의별 것), 새로운 시간(새해, 설날)과 관련된 행동을 살펴볼 수 있다. 새해 해돋이 보러 가기, 새 신발 사면 밟기, 아기 생기면 태몽 꾸기 등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전시다.

새로운 시점



2 3



새로운 물건

66 이색 전시 '새끼-새것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는 '새것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비슷해 보이는 건 착각일까?'라는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새끼-새것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전시 기간 2월 18일까지
 전시 장소 인천시립박물관 1층 갤러리 한나루
 전시 휴관 매주 월요일(설 연휴 기간 정상 개관)
 관람료 무료
 문의 032-440-6759



새로운 시간

주제가 독특한 만큼 즐길 수 있는 요소도 다채롭다. 안내문을 따라 전시 오브제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공감의 폭을 넓혔다. 리플릿 하나도 쉬이 넘기지 않고 전시 관람이 곧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제작했다. 전시실 입구에서 '내가 올해 원하는 새끼'이 적힌 도장을 리플릿에 찍고 전시를 관람한 뒤, 포토존에서 그 새끼를 얻었을 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붙이면 멋진 액자가 탄생하는 방식이다.

달력을 이용한 색다른 이벤트도 진행된다. 매년 새해가 되면 집에 달력을 거는 것에서 착안해 당일 가장 처음 방문한 관람객이 전시실 한편에 걸린 일력을 찢어 안내 데스크로 가져가면 선물과 교환해준다. 온통 '새끼'으로 가득한 기분 좋은 전시. 인천시립박물관은 이번 전시에 모든 관람객이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EXHIBITION
SAEBBING

CULTURE CALENDAR

02

FEBRUARY 2024

01 목

마술 체험전 매직 박스(오픈런)

루시드아트홀
월~금 오전 11시, 오후 3시~5시
전석 2만 5,000원
032-710-4907

따끈따끈 베이커리

루시드아트홀
4월 27일까지 토~일 오후 2시~4시
전석 1만 5,000원
032-710-4907

03 토

최형배 마술사의 MAGIC MOON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3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4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2만 6,000원~
0507-1401-5710



04 일

소프라노 이윤정 독창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 원
032-289-4275



12 월

뮤지컬 피노키오

검단복지회관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4시
전석 2만2,000원
032-561-4115

14 수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 원
032-289-4275

16 금

★공연 맛보기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 연주회- 2024 인천 영 아티스트 콘서트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1588-2341

17 토

뮤지컬 백설공주

청라복합문화센터 블루노바홀
17~18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전석 2만 7,500원
032-510-6008



18 일

이윤석&박준호 듀오 콘서트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 원
032-289-4275

22 목

비전 스트링 콰르텟 내한 공연

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오후 7시
전석 3만 원
032-772-7700



23 금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 연주회- 2024 챔버뮤직 시리즈 I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1588-2341

2024 ALL SHOOK UP!

인천문학경기장 문학시어터
23~24일 오후 1시~6시
관람료 문의
032-433-3777

뮤지컬 별주부전

아띠홀
3월 10일까지 금~일 오후 1시~3시
전석 ~2만2,900원
0507-1350-4222

24 토

뽀로로 20주년 스페셜 매직 싱어롱쇼- 슈퍼스타 뽀로로 드림 콘서트 시즌2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24~25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관람료 문의
1544-1555-1566-6551



신비아파트 '붉은 눈의 저주'

중구문화회관
24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2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3만 2,000원~
032-886-9045

IFEZ 국제합창축제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6시
전석 2만 원
032-453-7700



25 일

사이언스 매직쇼

마술사 제이티의 과학 실험실
인천어린이과학관 1층 공연장
25일~3월 17일까지 오후 2시
전석 2만 5,000원
032-456-2500



이달의 전시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전시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2월 16일까지
032-500-2000



덕물풍, 마음을 걸다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2월 25일까지
032-440-6759



인천 미술

올해의 작가오원배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1(B)
3월 3일까지
032-760-1000

Be new!

롯데백화점 인천점 롯데갤러리
3월 3일까지
032-242-2987

휴과 불의 조화, 토기

검단선사박물관 특별전시실
3월 31일까지
032-440-6797

사진으로 읽는

인천 근현대 소설- 윤정미 사진전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
4월 28일까지
032-773-3800



시골취의 도시 여행

인천도시역사관 3층 어린이전시실 오픈런
032-850-6000

공연 맛보기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 연주회 '2024 인천 영 아티스트 콘서트'



“인천 클래식 빛나는 셋별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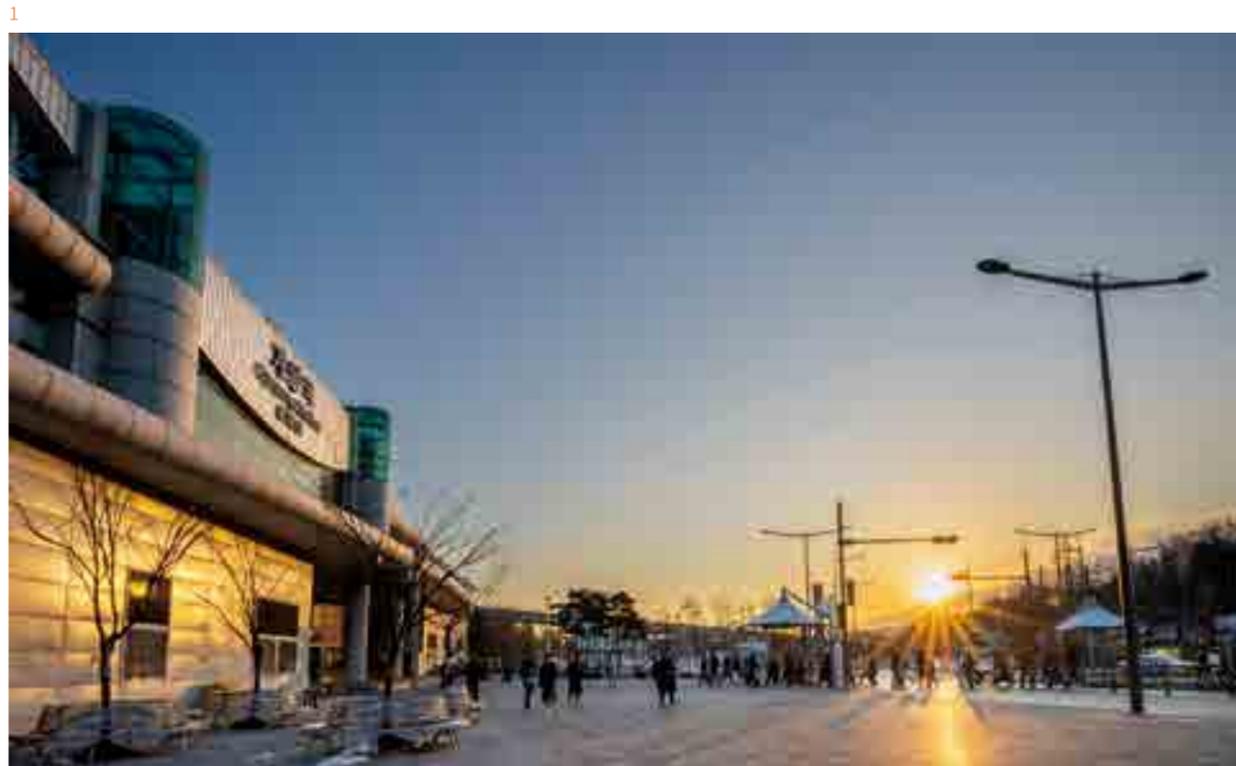
인천 클래식 셋별들의 축제, 인천시립교향악단의 '2024 인천 영 아티스트 콘서트'가 새해 첫 기획 연주회로 펼쳐진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인천에 연고를 둔 잠재력 있는 젊은 음악인들을 만나기 위해 협연자 공개모집을 통한 엄정한 오디션을 진행했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3명의 젊은 아티스트는 김나연(클라리넷), 임하나(바이올린), 이지연(첼로)이다. 이번 공연에서 이들은 각각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2번'과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그리고 엘가의 '첼로 협주곡 마단조'를 인천시향과 협연한다.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예들의 빛나는 시작이 관객의 귀와 마음을 눈부시게 물들인다.

시민 선

視線

굿모닝, 아침을 깨우는 풍경

오늘, 시민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새 희망 잔뜩 머금은 반짝이는 눈망울로 바라본 시민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시선의 끝자락에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빛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시민의 눈에 비친 삶 속 이야기, '아침을 깨우는 풍경'을 담았습니다.



#새벽출근 #부평에서계양으로 #내일은희망

첫 번째 시선

이른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부평을 출발해 공항철도로 갈아탈 수 있는 계양역으로 향합니다.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우러져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은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강원자(부평구 주부토로)



2
3



#할아버지캠퍼 #행복한아침 #눈내린캠핑장

두 번째 시선

느지막이 배운 캠핑의 맛과 멋에 흠뻑 빠진 요즘입니다. 집에서 몇 번을 깨워야 일어나는 게으름뱅이 손주들이 밤사이 쌓인 눈을 보자마자 텐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강아지도 즐거운지 여기저기 쿵쿵. 눈 내린 캠핑장의 아침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최정구(계양구 봉오대로)

#청량산산행 #싱그러운아침햇살 #상쾌한풍경

세 번째 시선

건강한 삶을 위해 매일 아침 동네에 있는 청량산에 오릅니다. 청량산 정상석 너른 바위에서 맞는 아침 햇살은 언제나 싱그럽습니다. 그렇게 술밭까지 왕복하며 상쾌한 아침 풍경에 빠져듭니다. 인천대교 아래, 푸른 바닷길로 드나드는 여객선은 아름다운 배경이 됩니다.

박금녀(연수구 독배로)

#고요하고도역동적인 #오늘도행복 #태양과아보카도

네 번째 시선

집 안에서 맞이하는 아침 풍경은 고요하고도 역동적입니다. 하늘이 별강게 달아오르며 온 세상을 빛으로 물들일 때, '오늘 하루도 행복하자' 되뇌며 희망을 그리곤 합니다. 거실 밖 무심히 서 있는 아보카도나무도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즐거워하네요.

이영인(서구 청라커널로)

#딸만나러가는길 #속초영금정 #희망찬동해일출

다섯 번째 시선

강원도 속초에 살고 있는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은 늘 행복합니다. 속초에 가면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 바로 일출 명당 영금정입니다. 새로운 기대를 잔뜩 머금고 떠오르는 동해의 일출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다시금 삶에 대한 희망이 피어오름을 느낍니다.

윤훈상(연수구 독배로)

4 5



'새학기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 참여 방법
1. 아침을 여는 일상을 포착해 사진으로 찍는다.
 2. 짧은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로 보낸다.

보내실 곳 gmi2024@naver.com

※ 응모 시 성명과 휴대폰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지면에 사진과 사연이 소개될 경우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IMAGE NEWS

66 지금 타고 계신 열차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99
인천, 인천 출발 열차입니다



강남 사람들은 좋겠다
인천이랑 가까워져서

#국토교통부 1월 2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정 발표
#GTX-D와 E 노선 모두 인천에서 출발
#인천시, 모든 시민과 함께 환영

01



인천 사람들도 좋겠다
모든 도시가 부러워해서

#GTX-D 노선, 검단, 계양 거쳐 강남 지나 수도권 곳곳으로
#GTX-E 노선, 공항, 청라, 가정, 작전 지나
환승 후 수도권 어디든
#부러울 수밖에 없는 교통 인프라 구축

02



올해의 알파벳은 'Y'
GTX가 두 개 노선이나

#GTX-D 노선 개통 후 검단과 청라에서 삼성까지 약 30분
#영종에서 삼성까지 약 40분에 출퇴근 가능
#Y자 GTX 노선으로 수도권을 자유자재로

03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all_ways Incheon 현실로

#인천을 통해 세계로, 세계에서 인천으로 연결
#시정 철학 '오직 시민, 오직 인천'을 바탕으로
#사통팔달 철도망 확충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04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

- 1 — 오는 5월부터 정부의 케이패스(K-PASS)를 기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 **아이패스 I-PASS**와 **광역버스 정기권인 광역 아이패스가 도입**되어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2 — **인천시 주민 등록 인구가 최초로 300만**을 넘어섰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1980년 부산시 이후 44년 만이다. 이로써 인천시는 서울 부산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됐다.
- 3 — 300만 인천 시민의 든든한 안전장치인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12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2024년부터 자연재해 상해 후유 장애가 더해졌다.
- 4 — **‘희망 도서 서점 바로 대출’**은 미추홀도서관이나 분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읽고 싶은 책을 가까운 동네 서점에서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올해 **45개 서점으로 확대**됐다.
- 5 —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참가자를 **3월 8일까지 접수**한다.
- 6 — 육지보다 평균 5배 이상 비싼 택배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섬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국비 포함)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 7 — 4월 창단하는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젊은 세대의 유입이 늘어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 예술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시립예술단이다.

INCHEON NEWS

‘아이패스’로 교통비 돌려받아요

인천시가 정부의 케이패스K-Pass를 기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 아이패스I-Pass와 광역버스 정기권인 광역 아이패스를 도입해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케이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하면 사용액의 20~53%를 다음 달 돌려주는 정책이다. 5월 시행 예정인 아이패스는 케이패스 혜택인 대중교통 비용의 20~53%(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주고, 케이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또한 케이패스, 경기도의 더The 경기 패스와 달리 65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료 환급률을 올 상반기 중 20%에서 30%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50%까지 돌려줄 계획이다. 케이패스는 청년의 경우 만 19~34세를 지원하지만, 인천시는 청년 연령 범위를 19~39세로 확대한다.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도 포함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행·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추진한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정기권 개념에 대응해 도입하는 광역 아이패스는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시민이 매달 30일간 인천시 광역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정기권 금액은 추후 결정된다. 문의 032-440-3887

300만 43명의 시민과 함께합니다



인천시 주민 등록 인구가 최초로 300만을 넘어섰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1980년 부산시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인천시는 2024년 1월 29일 오후 6시 기준 주민 등록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한 300만43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인천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됐다.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 말 기준 인천시의 인구는 30,096명이 늘어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 증가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2022년에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서며 서울에 이어 경제 규모 2위 도시로 올라서기도 했다. 이처럼 인천시는 인구와 경제 성장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의 032-440-2433

시민 안전 보장의 폭을 넓힙니다

300만 인천 시민의 든든한 안전장치인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12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2024년부터 자연재해 상해 후유 장애가 더해졌다. 이에 따라 인천 시민들은 올해 신규 항목인 자연재해 상해 후유 장애를 비롯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전세 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2021년 사고부터 보상),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022년 사고부터 보상), 사회 재난 사망(2023년 사고부터 보상) 등 모두 13개 항목의 보장을 받게 된다. 인천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문의 032-440-5736

그림으로 그리는 안전한 세상



인천시가 안전 취약 계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 의식 함양과 안전 실천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어린이 안전 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012년~2017년에 출생한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총 12작을 선정해 시상하며, 공모 기간은 2월 23일까지다. 공모 주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 관련 위험 및 위해 상황 등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 어린이가 생각하는 안전한 세상의 모습 등이다. 참가 신청은 인천시 홈페이지 ‘소통 참여→공모전’ 게시판을 이용하고, 입상작으로 선정되면 추후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입상작은 인천시에서 제작하는 시민 안전 홍보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재난 안전 전시회 등 공익 광고로도 활용된다. 문의 032-440-1892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만반의 준비

인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내 55개 모든 전통시장(등록 및 무등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전수 점검을 마무리했다. 겨울철 한파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점검은 인천시와 각 군·구, 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전수 점검은 각 군·구별로 실시하는데, 소방 분야, 노후 및 취약 시설 분야, 화재 사고 상황 대응 체계 등을 분야별로 진단하고 보완 조치하고 있다. 문의 032-440-4223

새콤달콤, 어린이 농부가 되어보세요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만 5세 이상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교육 ‘어린이 농부 교실’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업홍보관에서 전시 중인 벼의 일생, 전통 농기구, 벼 생체 표본 등을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에서 인천 지역 먹거리(로컬 푸드)인 딸기가 자라는 모습도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되며,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회차별 25명 내외로 인원을 구성해 날짜별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문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032-440-6936

송도의 6월을 기대하세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6공구 호수변에 위치한 5만 3,000㎡ 규모의 A12 부지에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A12 부지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알차게 활용해 주민들에게 친환경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벤치 등 갈대 산책로와 포토존이 설치되고,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 지역 명소를 만들 계획이다. 이곳은 2월 착공에 들어가 땅 고르고 부분 파종을 거쳐 6월 완공 예정이다. 경제청은 완공 이후 MOU 체결 및 협의 중에 있는 A12 부지에 대한 투자 유치 결과에 따라 휴식 공간 조성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 문의 032-453-7144

INCHEON NEWS

법과 원칙에 기반한 시민 행복 실현

인천시는 그간 추진하고 있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인천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현행 광역화 추진 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 수립, ‘자원 순환 정책 지원 실무 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 군·구 주도 속의·공론화 추진 및 시 ‘공론화 지원단’ 운영,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과과 페널티 부여 등이다.

문의 032-458-7083

인천 청소년들의 행복을 지휘합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4월 창단하는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초대 상임지휘자로 조현경 지휘자를 위촉했다. 조현경 지휘자는 단국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음악학과에서 합창지휘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최근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이 늘어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 예술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창단하는 시립예술단이다.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인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 50여 명으로 구성, 단원을 공개 모집해 4월 정식 창단할 계획이다.

문의 032-420-2736

일본 기타큐슈, 인천을 배우다



인천시와 국제 자매 도시인 일본 기타큐슈시 공무원 연수단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발전된 인천을 견학하기 위해 인천을 찾았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5월 자매결연 35주년 기념으로 인천을 방문했던 다케우치 가즈히사 기타큐슈 시장이 기타큐슈 공무원들이 꼭 인천의 발전 현장을 직접 보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에 따라 진행됐다. 기타큐슈 연수단은 인천시가 마련한 스마트도시·재난·교통·관광 분야 등 각 업무 담당자의 강의와 현장 견학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친환경전동차를 활용한 개항*지 투어, 송도국제도시 트리플스트리트 등을 체험했다.

문의 032-440-3205

원하는 책을 동네 서점에서 바로바로

미추홀도서관이 원하는 책을 무료로 바로 빌릴 수 있는 ‘희망 도서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를 웅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 위치한 45개 동네 서점에서 운영 중이다. 희망 도서 서점 바로대출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읽고 싶은 책을 가까운 동네 서점에서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21년 남동구 관내 7개 서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3년 41개, 올해 45개 서점으로 확대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 ‘비대면 도서 대출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미추홀도서관(책이음) 회원이면 누구나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책을 빌릴 수 있다.

문의 032-440-6627

섬에서도 마음 편히 택배 주문하세요



인천시가 육지보다 평균 5배 이상 비싼 택배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섬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국비 포함)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 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강화 6개 섬(미법·서검·주문·아차·불음·말도)과 옹진 21개 섬(연륙된 영흥·선재도 및 측도 제외) 등 모두 27개 비연륙 섬의 주민 1만 4,740명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이들 지역에 주민 등록을 두고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후 1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택배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증빙 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문의 032-440-4896

섬, 행복과 만족을 누리세요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촌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어촌·수산 분야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어촌과 섬 지역의 고령화, 인구 감소, 사회적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한 어촌 생활 및 안전 기반 개선, 어항 기반 시설 구축, 접경 해역 조업 어건 개선 및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 풍요로운 수산 자원 조성 및 친환경 양식 어업 확대, 수산물 유통 기반 조성 및 어촌 활성화 등 5개 중점 과제를 추진해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다 함께 잘사는 어촌을 만들어간다는 의지다.

문의 032-440-4852

수소 버스 타고 공항 갑니다

새로운 공항버스가 개통되고, 기존 노선 정류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공항 이용이 한결 편리해졌다. 인천시는 공항버스 6777-1번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6777번 노선에는 상·하행 정류장 각 2개소를 추가로 늘렸다. 특히, 이들 2개 노선에는 국내 최초로 총 6대(6777 3대, 6777-1 3대)의 수소 전기 우등 버스가 도입된다. 인천시는 수소 전기 버스를 도입해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에 앞장서고 있으며, 기존 공항 리무진들과는 차별화된 인천 10색을 활용한 자체 디자인을 도입해 친환경 수소 버스 선도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문의 032-440-3985

학자금 대출, 인천에서는 걱정 말아요



인천시가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2024년 상반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참가자를 3월 8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중 2023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매해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재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계속 인천시에 주민 등록이 된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 한국 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 소득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생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 이내까지 지원된다.

문의 032-440-2164

COUNCIL NEWS

시민 위해 머리 맞대는 역대 최다 의원들



인천 지역 내 현안들을 연구할 2024년도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총 24개로 운영된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시의원은 전체 40명 중 총 39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한다. 정책 역량 개발을 위한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연구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정당 및 상임위원회 상관없이 연구 과제에 관심이 있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별 총 3개 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 2023년도에는 17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간담회 74회, 토론회·세미나 19회, 정책 연구 용역 12건, 현장 조사 활동 11회 등을 실시하며 내실있는 연구 활동을 펼쳤다.

인천 가구 산업 발전 적극 지원 다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 지역 가구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열린 '2024 인천 가구박람회'를 참관해 참가 업체 관계자 및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행사를 주최한 (사)인천가구발전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내 가구 산업 현황과 협의회회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가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가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위원회는 앞으로도 인천 가구 산업의 부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시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직업계고등학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업계고 관계자와 학부모, 학생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인천금융고 전준희 학생은 "우리는 인생의 큰 전환점에 있다"라며 "미래의 인재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직업계고에 대한 사업이나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무엇보다 과거 직업계고의 인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미래 산업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직업계고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025 APEC 정상회의의 무대는 인천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인천시 글로벌도시국 업무 보고를 받고, 인천시와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여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향한 인천 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대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배움의 의회



인천시의회는 2월 23일까지 6주간 지역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겨울방학 제2기 대학생 인턴십'을 운영한다. 이번 인턴십은 2023년도 여름방학 기간에 운영된 제1기 대학생 인턴십의 성공적인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본회의 참관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현장 시찰 및 간담회 참관 등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이뤄진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 의정 지원 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했다. 인턴 참여자들은 본인의 관심 분야와 적성을 고려해 근무부서에 배치되고, 대학별 내규에 따른 학점 부여와 최저임금을 고려한 실습지원비가 지급된다.

인천 바다의 경쟁력을 오래도록



인천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인천시 해양항공국, 글로벌도시국의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쓰레기 운반선 건조 접안 시설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 해양 쓰레기 거점별 처리 실행 계획 수립, 개항장 지역 활성화, 해양대학 유치,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가시적인 사업 결과 도출 등이었다. 인천시의회는 해양산업과 해양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해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며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청년의 대변인, 청년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지난해 12월 구성된 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청년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으로부터 청년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정책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발전기금 설치 검토, 청년 활동가 육성 및 내실 있는 청년 단체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 지원 확대를 통한 청년 인재 양성, 인천 청년 공간 '유유기지' 홍보 강화 및 활성화, 청년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철저한 예산 확보 등이었다. 이에 청년특별위원회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인천 통신판매업자 관리 체계 구축 노력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 증가와 맞물려 소비자 피해가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신판매업자 관리 및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요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인천의정소식> 구독 안내
 인천시의회의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의회 소식지 <인천의정소식>에서 확인하세요.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우편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6



<인천의정소식> 바로가기

여기, 오직 시민 행복을 위해 달리는 인천의 오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천의 찬란한 내일을 여러분만의 빛깔로 색칠해주세요. 새하얀 공간이 시민의 색으로 물들어갈수록, 인천의 행복한 미래가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인천의 눈부신 오늘과 찬란한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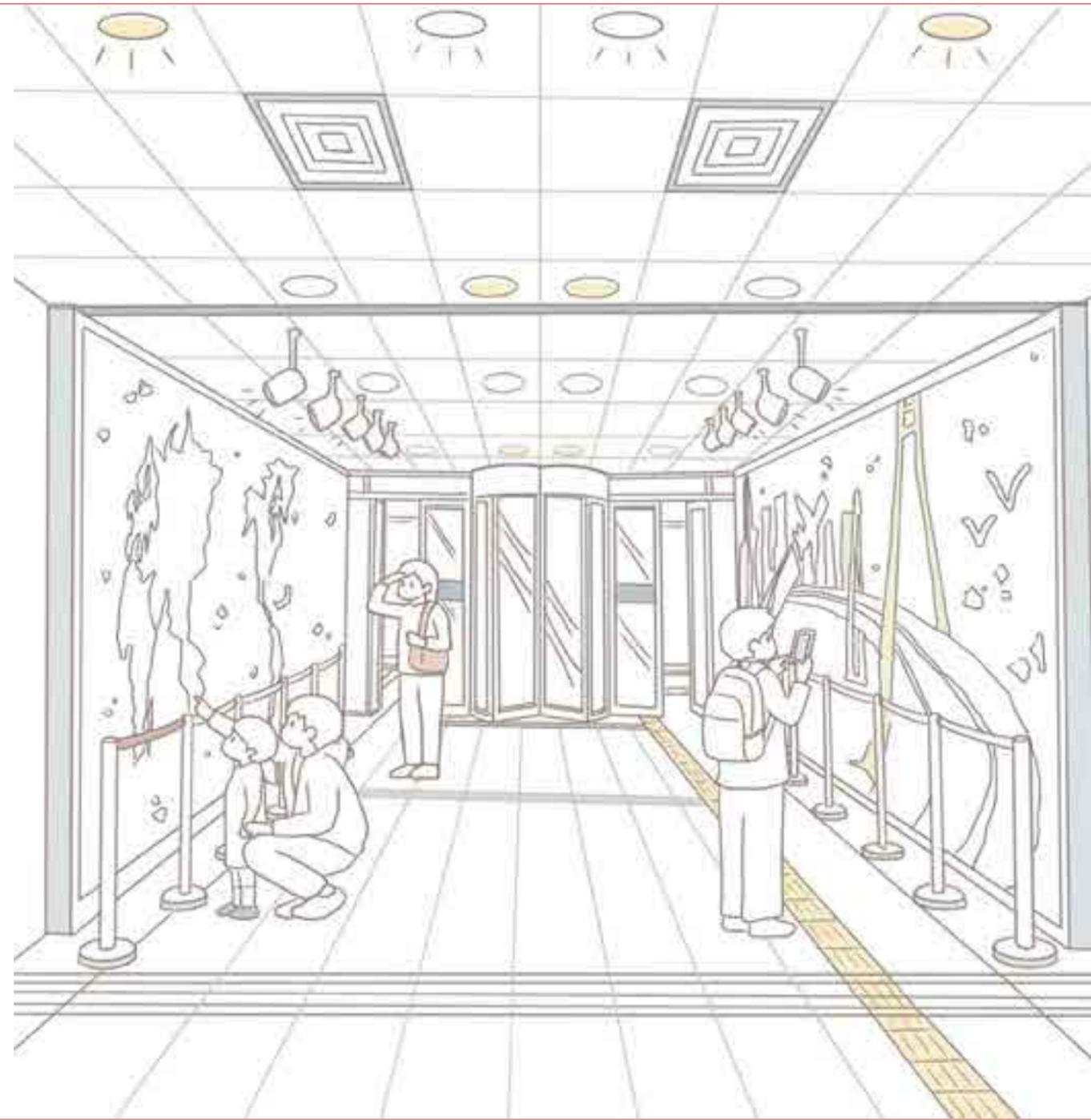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지하철역,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이 되다

인천시 도시 철도 역사 내 유휴 공간이 시민을 위한 ‘문화가 있는 특화 역사’로 재탄생한다. 대상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센트럴파크역과 부평삼거리역, 계산역 3곳이다. 이 중 센트럴파크역은 이미 변신을 마치고 역사 이용객들에게 싱그러움을 전하고 있다. 친환경 소재인 이끼로 벽을 꾸민 모스월(Moss wall)이 조성되어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이곳은 센트럴파크역과 재외동포청 건물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부평삼거리역에는 시각장애인 편의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한 ‘행복 누리역’이, 계산역에는 25m 유리벽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시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방형 문화·역사 갤러리가 조성된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인천도시철도 1호선 노후 역사 환경 개선과 연계해 안전은 물론이고, 문화 예술 경험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건물로 이어지는 센트럴파크역



2024년 1월호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노시한 서구 서달로



김국인 남동구 정각로



전이준(서구 봉오대로)



최을 계양구 안남로



김선화 천안시 서북구

인천도시철도 역사는 단순한 교통 시설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특화 역사 발굴 등 시민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간다.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 작가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 보내는 방법 ①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홍보기획관실 <굿모닝인천> 담당자 앞
- ② 메일 : gmi2024@naver.com
- 기간 : 2024년 2월 16일까지
- 문의 : 032-440-8305 ※ 응모 시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 시민안전보험으로 든든하게

내용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대상 인천시에 주민 등록을 둔 모든 시민 자동 가입(등록 외국인 포함)

기간 12월 31일까지(매년 갱신)

보험료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가입 인천 시민이면 자동 가입

문의 032-440-5736

02 편리하고 안전한 온라인 성묘 이용하세요

내용 온라인 성묘 시설 둘러보기(360도 VR), 온라인 차례상 지내기(고인 안치 사진)

접속 grave.insiseol.or.kr

문의 032-456-2320



설날 연휴 인천가족공원 운영 안내

운영 시간 2월 9일~12일 오전 6시~오후 6시

차량 진입 통제 2월 10일(설날 당일) 오전 6시~오후 5시
※ 통행 가능 : 승화원(화장 시설) 이용 장례 차량

임시 주차장 제일고등학교 운동장
(2월 9일~11일 오전 6시~오후 6시)

셔틀버스 2월 10일(설날 당일) 오전 8시~오후 5시
※ 승하차 장소 : 부평삼거리역 2번 출구~인천가족공원 대형 주차장

03 새해에는 마음 건강 챙기세요

내용 마음으로 정신 건강 아카데미 운영

대상 인천 시민 누구나

기간 2024년도 기념품 소진 시까지

방법 1. 마음으로 정신 건강 아카데미 로그인하기
2. 6회기 프로그램 참여 후 상품 수령 주소 제출하기

혜택 양키 캔들, 워머 세트 증정

문의 0507-1420-9914



04 모두의 평등한 알 권리를 응원합니다

내용 장애인 생활 신문 '미디어 생활' 앱 구독 안내

방법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미디어 생활(장애인 생활 신문)' 입력 후 채널(친구) 추가

구성 -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로 듣는 뉴스': 기사 읽어주기, 기사 확대 기능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뉴스': 수어 통역 영상 뉴스 제공
- 발달장애인을 위한 '카드 뉴스': 읽기 쉬운 카드 뉴스 제공

문의 032-433-4201

05 소중한 인권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내용 2024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대상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여성 청소년(2006년생)

지원 1인당 월 1만 3,000원 기본 생리용품 구입비

신청 스마트폰 '인천e음' 앱 또는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 생리용품 전용 카드 발급(인천e음 지역 화폐)

사용 카드 지급 개시일~12월 31일

품목 시중에 판매 중인 여성 생리용품 일체

구매 인천e음 지역 화폐 가맹 편의점

문의 032-440-2845 또는 각 군·구 청소년 업무 담당자



06 나라를 위한 희생에 감사를 전합니다

내용 인천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안내

대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 배우자

지원 월 5만 원(매월 25일 지급)

신청 연중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QR 코드 참조



07 진정한 주민 자치를 실현하세요

내용 2024년도 인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안)

대상 인천 시민 또는 단체

유형 광역 참여형
※ 시군구 자치 사무 기준에 따라 광역 사무 적용(지방자치법)

범위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참여

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 제안 사업 심의 후 규모 결정(목표액 미설정)

절차 주민 제안(2~4월) → 사업 검토·보완(5~7월) → 공론화·선정(7~9월)

문의 032-440-2242



08 시민을 위한 '마당'을 이용하세요

내용 미추홀학산문화원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 수시 대관 운영

대상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누구나

대관료 동아리실 무료, 다목적실 유료

예약 기간 수시 운영

예약 방법 미추홀학산문화원 홈페이지

문의 032-866-3993



09 안전하게 겨울을 마무리해요

내용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기간 2월 29일까지

대상 대설, 한파, 화재·산불 관련 위험 요인
※생활 불편(광고물, 쓰레기 등), 불법 주정차, 자동차·교통 위반 등은 제외

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안전 신고 메뉴 이용

이벤트 참여 이벤트 참여 웹 페이지에서 개인 정보 수집 동의, 성명, 휴대폰 번호, 신고 번호 입력 후 제출

경품 모바일 CU 편의점 쿠폰(5,000원 상당, 200명)

발표 3월 20일(CU 공식 인스타그램)

문의 044-205-4224

10 스마트하게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켜요

내용 2024년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 공감e가득 공모(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e)을 활용한 지역 현안 해결로 주민 공감 가득한 지역 활성화 추진)

주제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자체, 기업, 주민 등이 협력해 지역 현안을 발굴·해결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
※안전, 돌봄, 교통, 건강, 환경, 에너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주제 가능

기간 협약 체결일~11월 30일

지원 10개 내외 과제(과제당 1억 원 규모)
※ 최종 지원 규모는 심사를 거쳐 확정

접수 3월 13일까지

문의 02-2031-9351, 9359

11 마이스 도시 인천, 함께 만들어요

내용 2024 인천 기업 회의 및 포상 관광 개최 지원 사업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 국내외 기업 회의·포상 관광을 인천으로 유치 및 개최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신청 인천MICE뷰로 홈페이지(incheoncvb.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MICE 지원 → 지원 신청·관리

문의 032-899-7438, 7431, 7434



12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인천

내용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 기업 모집

기간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 마감)

대상 4개 업체

접수 방문 또는 등기 우편(접수 확인 필수)
※인천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1 인천시여성역광장 인천산단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 032-440-8999

2월, 도서관을 즐겨요

애인 愛仁 능력 평가

미추홀도서관

2024년도 상반기 정규 강좌 독서회 수강생 모집 유아~노년층, 장애인 대상 총 13개 프로그램 2월 14일~마감 시 032-440-6668

2030 경제 특강 '자본주의에서 생존하기' 경제 에세이 작가, 유튜브와 함께 재테크와 금융 상식 알아보기 2월 13일 오후 7시 성인 대상 032-440-6668

스마트폰 유용한 앱 활용하기 일상생활에서 필수로 활용하는 스마트폰 기능 익히기 2월 8일~13일~15일 오전 10시 어르신 대상 032-440-6668

영화로 만나는 라틴아메리카 영화 인문학을 통한 라틴아메리카 이해하기 2월 13일~27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성인 대상 032-440-6666

타임머신 타고 전래 놀이 우리나라 전통 놀이와 세계 전통 놀이 배우기 2월 17일 오전 10시 초등 1~2학년 대상 032-440-6665

청라국제도서관

2024년도 상반기 정규 강좌 독서회 수강생 모집 유아~노년층 대상 총 7개 프로그램 2월 14일~마감 시 032-562-1674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 교육 용돈 관리부터 시작하는 경제 교육의 중요성, 합리적인 용돈 관리법 실천하기 2월 14일~21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초등 1~3학년 대상 032-562-1675

청라호수도서관

2024년도 상반기 정규 강좌 독서회 수강생 모집 유아~노년층 대상 총 9개 프로그램 2월 19일~마감 시 032-563-8125

영종하늘도서관

2024년도 상반기 정규 강좌 독서회 수강생 모집 유아~노년층 대상 총 8개 프로그램 2월 19일~마감 시 032-746-9137

어른을 위한 시원하고 자유로운 글쓰기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 글을 써야 하는 이유 및 방법 2월 13일 오전 10시 성인 대상 032-746-9139

여행의 설렘, 기록의 쓸모 여행지 선정, 여행 계획 세우기, 여행 기록하는 방법 2월 15일 오전 10시 성인 대상 032-746-9139

시민 재능 기부 '커피 인문학' 커피 추출, 시음 및 세계 3대 커피에 관한 인문학 2월 22일 오전 10시 성인 대상 032-746-9139

마전도서관

2024년도 상반기 정규 강좌 독서회 수강생 모집 유아~노년층 대상 총 6개 프로그램 2월 19일~마감 시 032-590-2831

겨울방학 특강 '경제야 놀자' 화폐가 생겨난 이유를 배워보고 용돈 관리 실천법 익히기 2월 7일 오전 10시 초등 1~3학년 대상 032-590-2833

[행정 체제 개편 영역]

다음 지문을 읽고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인천의 행복 지도가 다시 그려집니다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 체제는 2군·9구로 출범하게 된다. 1995년 3월부터 유지되어온 2군·8구 체제가 31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법률안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 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지 행정 체제 개편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자치 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2022년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안' 발표 후, 지난해 주민 의견 수렴 결과 84.2%의 지지와 법적 절차인 지방 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 1. 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 완성되는 인천의 새로운 행정 구역 구성은? ① 2군 7구 ② 2군 8구 ③ 2군 9구 ④ 2군 10구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가 바로 '인천 정책 능력자!' 위 문제에 대한 답을 적어 메일로 보내주시면,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gmi2024@naver.com ※ 보내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휴대폰 연락처를 꼭 기재해주세요!

우리가 읽고 싶은 책



글 최재용 연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미추홀'은 옛날 삼국시대 인천의 이름이다. 고구려가 이곳을 점령한 시기에는 고구려말로 '매소홀'이라 했다. 미추홀은 주몽의 아들인 비류 沸流와 온조 溫祚에 관한 <삼국사기> 이야기 속에서 "...그러나 비류는 듣지 않고 그 백성을 나눠 미추홀로 가서 살았다..."라는 내용으로 처음 등장한다. 그런데 이 '미추홀'이나 '매소홀'은 우리가 지금의 한자 발음을 따라 읽는 것일 뿐이지 그 당시에도 이렇게 불렸던 것은 아니다. 이는 한자 漢字의 소리와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던 '한자 차용 借用 표현'이다. 이를 우리말로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는 학자들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미추나 매소를 '물<水>+ㅅ(사이시옷)'이라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홀忽'이 성 城이나 마을을 뜻하는 우리말 '골'을 나타낸 글자로 보는 해석은 학자들 사이에 거의 일치된다. 이렇게 보면 미추홀/매소홀은 '물+골', 곧 '물의 마을' 정도로 풀이된다. 인천이 바닷가에 있으니 잘 어울리는 해석이다. 이 해석의 근거는 우리 고대어에서 '미'나 '매'가 물을 뜻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 말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역, 미나리(물나리), 미더덕(물더덕), 미꾸라지' 등에 그 흔적을 남겨놓고 있다. 이들 단어는 모두 물과 연관돼 있다. 또 "매홀은 수성이라고도 하며, 수곡성은 매단홀이라고도 한다(買忽一云水城 水谷城一云買旦忽)"라는 <삼국사기>의 기록 등을 통해 고구려어 '매'는 '수(물)'를 뜻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그리고 '추'나 '소'는 각각 사이시옷 역할의 글자로 본다.

彌鄒忽 買召忽

두 번째 땅 이름 [미추홀·매소홀]

따라서 미추홀/매소홀이 '물+골'을 나타낸 말이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미추나 매소를 근본 根本이라는 뜻의 '밀'을 나타낸 글자로 푸는 학자들도 있다. 이렇게 보면 미추홀/매소홀은 '밀골' 정도로 발음하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신라의 13대 왕인 미추왕 味鄒王이 김씨 金氏로서 처음 신라의 왕이 된 사람, 곧 밀바탕이 된 사람이라는 점에 착안한 해석이다. 미추왕의 미추 味鄒와 미추홀의 미추 彌鄒를 같은 뜻으로 보고, 비류가 이곳에 나라의 터를 잡았다는 점을 연관 지은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비류가 오기 전부터 미추홀이라 불렸으니 "터를 잡았기에 '밀골'이라 풀기는 곤란하다는 약점이 있다. 이와는 또 달리, 미추나 매소를 들<野>을 뜻하는 우리 옛말 '매'에 사이시옷이 붙은 것으로 보아 '들+골'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 중 어느 것이 가장 옳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가장 인정받는 해석은 '물+골'이다. 결론적으로 그 옛날 인천은 '밋골'이나 '맷골'이라 불렸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한자로 나타낸 말이 '彌鄒忽/買召忽'이다.



비류가 처음 터를 잡은 문학산. 그가 미추홀로 온 것은 당시 귀한 자원인 소금의 공급과 유통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있다.

이른바 ‘구도심’으로 이사를 온 지 2년째를 맞는다. 가족의 직장 및 통학 여건, 경제적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천 중구의 한 동네에 동지를 틀었다. 어릴 적 뛰놀던 고향의 모습을 닮아서일까. 쾌적한 주거 환경은 아니지만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다. 수인선 철길의 흔적은 고향의 간이역을 떠올리게 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의 흙은 고사리손으로 느꼈던 흙장난의 질감을 소환한다. 언제 울타리로 가로막힐지 모르지만, 동네 노인들처럼 이랑을 내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어보고 싶다. 살다 보면 정이 든다는데 실제로 하루하루 삶이 축적되는 만큼 정도 쌓여가는 듯하다.

그렇다고 새롭게 접한 공간이 그저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구도심으로 이사한 것을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역행(?)하는 특이 사례로 여기는 듯한 지인들(주로 신도시에 사는)의 표정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 가끔은 지역에 대한 이해력이 요구되거나 아쉬움을 감수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 그중 자식 출생 신고보다 더 힘들게 반려견 등록을 했던 경험은 각별하다.

동네 지리에 익숙해질 무렵이다. 반려견 등록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기 직전, 담당 부서가 영종도 구청 제2청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물론 지정 동물병원에서도 반려견 등록이 가능하다. 그래도 바람도 쐬 겸 인천대교를 건넜는데 반려견 등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반려견 등록 담당 부서를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옮긴 셈인데, 구도심 주민으로서 홀대받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모처럼의 섬 나들이에서 남은 것은 바닷바람의 여운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반감이었다.

이런 감정이 희석된 것은 얼마 전이다.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이 확정된 후 취재자 만난 영종도 주민의 일상을 접하면서다. 그 주민 또한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제2청사에 있는 부서가 제한적이다 보니 내륙의 구청을 방문해야 할 때가 많은데 배 타고 육지와 섬을 오가기 일쑤라고 한다. 통행료, 거리, 시간 등을 따지면 다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배를 타는 게 오히려 낫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한쪽에서는 불과 몇km 거리의 구청을 놔두고 통행료 내가며 인천대교를 건너야 하고, 한쪽에서는 배에 몸을 싣고 물로 나와야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

구도심과 신도시로 갈린 두 동네는 같은 행정 구역 내에서 이처럼 ‘행정 서비스의 부조화’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다. 인구 60만 명의 서구에도 비슷한 공통분모가 있다. 검단 지역에 제2청사 역할을 하는 검단출장소가 있지만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제 2026년 7월이면 이 기형적인 공통분모가 사라진다.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로 통합하고, 영종구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이다.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인천형 행정 체제가 출범하면 중구 내륙과 영종도처럼 그동안 생활권 분리로 인해 겪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행정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게 분명하다. 대상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맞춤형 지역 발전 기반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인천시 지역별 발전 계획에 따르면 행정 서비스 향상은 행정 체제 개편으로 달라질 미래의 편린에 불과하다. 이왕 제물포구 구민이 될 터이니 한 번 더 욕심을 내 본다. 제물포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중·동구가 특화된 발전 전략을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를 고대한다. 인천의 본산으로서, 역사와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 바로 제물포구의 정체성이었으면 한다. 그래서 반려견을 앞세워 동네 곳곳을 탐사하며 시간의 흐름과 삶의 다양성을 느끼는, 그 쏠쏠한 재미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구도심으로 이사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도록…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仁 · 生 · 네 · 컷

풍요로운 설 명절 보내세요!

인천에서의 행복한 삶을 네 컷 사진에 담는다.

<굿모닝인천>이 인천사진관 ‘仁·生·네·컷’을 통해 시민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사진으로 추억을 선물합니다.

참여 박해민 시민과 직장 동료들(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오랜 시간 근무했던 병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은 거짓말. 관련된 경력도 경험도 없기에 걱정이 앞선 것이 사실입니다. 예상대로 현실은 무거웠습니다. ‘잘해낼 수 있을 까’ 하는 고민이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할 수 있어!’, ‘더 좋아질 수 있어!’라는 긍정의 에너지가 몸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선뜻 손 내밀어준 회사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좋은 동료들이 힘이 되었습니다. 강추위가 주춤해진 1월의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송도국제도에 있는 회사 근처 미추홀공원으로 나섰습니다.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이색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랜만에 한가로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터라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굿모닝인천> 덕에 잊지 못할 추억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인천 시민 모두 행복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3월호의 주인공은 바로 나!

인천사진관 ‘仁·生·네·컷’에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가족, 친구 등 사진을 함께 찍은 분들의 간단한 소개와 짧은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되면 기억에 남을 멋진 사진을 촬영해드립니다. **참여 신청** gmi2024@naver.com